



[해설] 10년 내다본 기업인  
故 최종현 SK회장의  
경영철학 재조명  
03



Economy

코스피	2282.79 (0.00)	코스닥	784.81 (0.00)
금리 (우대금리)	2.04 (-0.01)	환율 (원/달러)	1128.90 (+11.70)(10일)

# 市場 맞선 투기와의 전쟁... 양극화만 더 키웠다

## 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매매가 20% 꺾음  
집 사려면 평균 7억원 필요  
한강 이남 22% '상승폭 최고'  
최근 4개 정권 중 상승률 최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원을 돌파하는 등 오히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최근 15년간 역대 정권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가장 가팔랐다. 부동산정책 1라운드 결과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 집권 1년차, 서울 집값 변동률 '최대'

12일 메트로신문이 부동산114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8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



지난해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인 정권의 집권 1년차 서울아파트 매매가는 현 정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2017년 5월 12일~2018년 5월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3%나 올랐다. 한국감정원 공시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5월 5억7029만원에서 서울 5월 6억9444만원으로 뛰었

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7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강 이남은 21.98%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강 이북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도 각각 16%, 12.93% 올랐다. 전국적으로 아파트매매가가 8.98% 상승했다.

현 정권처럼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1년차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5.88% 올랐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수급 불균형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집권 1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4.1% 올랐으며 수도권에서 14.95%, 한강 이남

19.23%, 한강이북도 8.43% 상승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초기엔 오히려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의 집권 1년차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93%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3.18%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은 -4.17%, 한강 이남은 -7.3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도 집권 1년차엔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에선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0.34% 떨어졌고 수도권은 0.17%, 한강 이북은 1.7%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공시에 따르면 2013년 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4억9417만원에서 2014년 2월 4억9245만원으로 떨어졌다. 불과 4년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2억원이나 오른 셈이다.

<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와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과 2018년 3월 일부 유가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메트로경제가 미래 언론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들을 찾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중산층,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 위주의 기사를 발굴해 온라인, 모바일, 지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경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서 취재기자 (수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취재 역량평가  
3차: 면접(블라인드 방식)
- 모집인원: 0명
- 응시자격: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이메일 접수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① 기 간: 2018년 8월 10(금)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6시까지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8월 2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년 8월 24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대입 수시 설명회 몰린 학부모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열린 2019 대입 수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 가계부채 둔화 속 신용·자영업 대출은 적신호

### 7월중 신용대출 6000억 ↑ 자영업 대출 2조원대 증가세 금리상승기 부실리스크 우려

최근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돼 가계부채가 안정화되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신용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도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비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0.59%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 대출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조원, 전월 대비 7000억원 작은 규모의 증가세다.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7월 6조7000억원이었는데 올 7월은 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1조9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지난달에 비해서도 2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가계대출현황을 뜯어보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여전하다는 이면이 존재한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증가폭은 1조원으로, 지난달에 대비 1000억원 늘어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2금융권 지난달 총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대비 4000억원 감소

했지만 오히려 기타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폭은 늘고 있다. 신용대출은 7월중 6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또 6월에 비해서도 4000억원이 늘어났다.

문제는 신용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 신용대출 금리상승은 가계대출 부실리스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비해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국민은행 3.95%, 하나은행 4.91%, 농협은행 3.95%, 신한은행 4.56%, 우리은행 3.79%로 지

난해 9월에 비해 각각 1.25%포인트, 0.56%포인트, 0.49%포인트, 0.62%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랐다. 평균 등락률은 0.59%포인트에 달한다.

게다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15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1조원대였던 대출증가폭은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한화, 5년 간 22조 투자 3만5000개 일자리 창출



한화그룹이 앞으로 5년간 22조원의 투자에 나선다. 태양광과 방산, 석유화학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한화그룹은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22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3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은 한 해 평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3조2000억원)보다 37%나 늘린 수치다.

부문별로는 항공기 부품 및 방위 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총 4조원을 투입한다.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방위 산업의 한류'를 이끌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5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규 리조트와 복합 쇼핑몰 개발 등 서비스 산업에도 총 4조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1위 태양광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ujin6326@

자동차업계 노조 '임단협' 대조된 행보

# 쌍용, 임금반납 '상생' vs 기아, 파업권 획득 '가시밭길'

쌍용차, 9년 연속 무분규 타결  
임원단 자율적 임금 10% 반납

기아차노조 '파업추진' 가결  
르노삼성, 단일 호봉제 등 대립

쌍용자동차 노사가 9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타결한 가운데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도 노사간 협상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50.1%의 찬성률로 2018년 협상을 최종 타결한데 이어 임원단의 자율적 임금 10% 반납도 성사했다.

쌍용차 노사는 이번 협상이 회사의 미

래 비전을 확고하게 세우는 임단협이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 합의를 이뤄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현재 어려움을 공유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와 한국지엠, 쌍용차가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고 노사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반면 현대차와 같은 그룹사인 기아차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현대차 임단협 사례를 따라갔지만 올해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아차는 임금체제 개편을 올해 임단협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년과 달리 접점을 쉽게 찾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4~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2.7% 찬성률로 파업추진을 가결했다. 이후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상태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달 초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임단협에 대한 노사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름휴가 이후 교섭을 진행해 노사간 의견 좁히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파업을 단행했던 한국지엠은 이미 지난 4월 올해 임단협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본 상황이다. 한국지엠의 경우 군산공장 잔여인력의 전환배치 문제와 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를 제외하면 파업 쟁의를 부를 큰 논란은 없는 상태다.

르노삼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지난해 노조가 부분파업 직전까지 가는 등 위기를 겪은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사측에 임금인상에 이어 임금피크제 상향과 단일 호봉제 재도입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르노삼성 노조가 지난 2012~2013년 회사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임금을 동결한 만큼 올해 전반적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임단협 타결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양재동 사옥.



폭염으로 인한 수확 감소와 휴가철 수요 증가로 수박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8월 현재 수박 1통 평균 소매가격은 2만6천422원으로 지난달 1만6천577원보다 57.1%, 지난해 8월 1만9천213원에 비해 35.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폭염 장기화에 치솟는 밥상물가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 비상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시금치 50%·열무 42% 상승  
민어 등 수산물 가격도 올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농·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배추 무 등의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채소류는 전월보다 3.7%, 농축산물은 1.3% 각각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50.1%), 열무(42.1%), 배추(39.0%), 상추(24.5%) 등은 한 달 새 가격이 경종 뛰었다. 고온에 약한 가축들의 폐사가 속출하면서 축산물 가격도 한 달 전보다 3.3% 올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7.8%, 2.7% 뛰었다.

이달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흐름은 이달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상 고온으로 고랭지 배추 출하량의 90%를 차지하는 강원도 주요 생산지의 생산량도 3.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폭염과 가뭄에 취약한 배추와 무는 지난달부터 작황이 악화되고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상승했다"며 "당분간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배추와 무 가격은 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제철 과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 농수산물 공사가 집계한 농산물 가격 현황을 보면 이달 수박 1통 평균 소매가격은 2만6000여원으로 7월보다 60% 가까이 올랐다. 참외 10개 기준 평균 가격도 1만6000여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6% 상승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가 14%, 배는 2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해, 9월 추석 대목에는 과일 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산 주요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물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월 30일~8월 4일) 노량진수산물시장에 입하된 평균 경락가는 민어 자연산 1kg이 4만7000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지난해 평균보다 40% 비쌌다. 참돔 자연산 1kg은 2만3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및 지난해 평균보다 50% 비쌌다.

농어 자연산 1kg은 1만9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지난해 평균보다 40% 올랐다. 고등어 1kg은 1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지난해 평균보다 10% 인상됐다. 오징어 1kg은 3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지난해 평균보다 10% 올랐으며, 갈치 1kg은 1만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지난해 평균보다 10% 가격이 상승했다. 자연산 광어 1kg은 1만6200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30% 올랐다.

수입산이 포함된 연어와 킹크랩, 대게나 지난 1년간 값이 폭락한 전복, 그리고 일부 조개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요 어류 전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 "수입차 피해구제 신청, 국산차의 3.6배"

소비자원  
5년간 수입차 불만 신청 55% 급증  
달러 체제로 운영... AS 관리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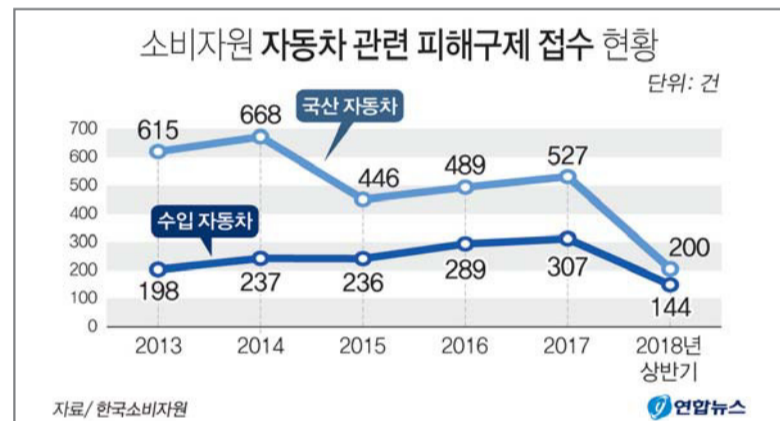
국산차보다 수입차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BMW 연쇄 화재사고 등 수입자동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이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수입차가 국산차의 3.6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품질이나 안전 등 문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국산 자동차는 감소했으나 수입자동차는 50% 넘게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산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3년 615건에서 지난해 527건으로 5년간 88건(14.3%)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건수는 198건에서 307건으로 109건(55.1%)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트



럭·버스를 제외한 승용차 시장에서 지난해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3.8%였다. 국산 5개사(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는 86.2%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국산 자동차의 3.6배가량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4건이었다. 이는 국산차(200건)의 4분의 3에 달하는 수치다.

소비자원 측은 국산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전면에서 나서 자동차 품질 문제 등

을 직접 관리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달러 체제라서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A/S)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매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총 1267건 가운데 품질 불만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는 등 AS 문제가 988건(78.0%)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다. 이어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사항(167건, 13.2%), 부당행위(46건, 3.6%), 제품안전 등 안전 문제(27건, 2.1%) 순으로 많았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여전

>> 1면 '규제 반작용?'...서 계속

◆ 1라운드는 敗...2라운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고 강도로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2 대책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높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1면 '한화 5년간 22조...'서 계속

금융 부문에서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별도로 투자 계획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자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한화그룹은 예년에 연간 3000~4000명 수준이었던 고용을 지난 2016년부터 태양광 공장 신설 등 신산업 진출을 계기로 6000명 규모로 늘린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7000명 수준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4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저금리 대출 및 자금 지원을 하는 동시에 중소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등도 돕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투자·고용 계획을 통해 올해 70조원 수준의 매출 규모가 오는 2023년에는 100조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n6326@



故 최중현 회장(왼쪽 첫번째)이 1986년 해외 유학을 앞둔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폐암수술을 받은故 최중현 회장(가운데)이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9월, 산소호흡기를 켜는 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故 최중현 회장(왼쪽 첫번째)이 1981년 초 내한한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 최중현 회장은 제 2차 석유파동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유공급 문제를 해결했다. /SK

# 미래 내다본 기업인, 에너지·ICT강국 초석 다졌다

## 최중현 SK회장 20주기 재조명되는 경영철학

울산에 파라자일렌 제조시설 준공 석유화학·필름 등 수직계열화 완성 사재털어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해외 유학비용·생활비 파격 지원 지도층 인사 첫 '회장' 장례문화 선도 500억 화장시설 준공...사회 기부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는 26일로 타계 20주기를 맞는 고(故) 최중현 SK회장이 남긴 말이다. 최중현 회장은 큰 유전도 없는 한국을 무자원 산유국으로 만들고,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그 밖에도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도 성공해 ICT 강국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했다. 재계에서는 그를 '10년을 내다본 기업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중현 회장은 자본, 기술, 인재가 없었던 1973년 당시 선경(현재 SK)을 세계



별거숭이였던 중주 인등산이 울창한 '인재의 숲'으로 변한 모습. 원안은故 최중현 회장과故 박계희 여사가 1977년 인등산에서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 /SK

일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섬유회사인 SK가 원유정제를 비롯해 석유화학, 필름, 원사, 섬유 등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비현실적이라 했지만 최중현 회장은 중동지역 왕실과의 석유 네트워크 구축 등 치밀한 준비 끝에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했다. 이후 1983년부터 해외유전 개발에 나섰다. 성공확률이 5%에 불과한 사업임에도 1984년 북예멘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1991년 울산에 합성섬유 원료인 파라자일렌(PX) 제조시설을 준공함으로써 수직계열화도 완성했다.

이후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

으로 삼은 최중현 회장은 미국 ICT 기업들에 투자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동통신사업을 준비했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에 참여하면서 당시 주당 8만원 대이던 주식을 주당 33만5000원에 인수했다. 주변에서 만류하자 "이렇게 해야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회사 가치를 더 키워가면 된다"고 설득한 일화도 있다.

최중현 회장은 1974년 사재를 털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당시 서울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해외 유학비용은 물론, 생활비까지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단은 44년간 인재를 키워냈는데 약 3700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이후 740명의 해외 명문대 박사를 배출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양계 최초 예일대 학장인 천명우(심리학과), 한국인 최초 하버드대 중신교수 박홍근(화학) 등 세계적 석학이 된 이들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시절인 1997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산소호흡기를 켜는 채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던 최 회장은 1998년 8월 26일 69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최 회장은 폐암으로 타계하기 직전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

하고, 훌륭한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 최중현 회장이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는 처음으로 회장을 택하면서 장례문화 선도를 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8년 20%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이듬해 30%를 넘는 등 매년 급증했고, 현재는 82%에 달할 만큼 대중화됐다. SK그룹은 최중현 회장의 유언에 따라 2010년 1월 500억원을 들여 충남 연기군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장례시설을 준공해 세종시에 기부했다.

최중현 회장이 남긴 경영 DNA는 장남 최태원 회장에게 이어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1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반도체와 바이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인수 직후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가 SK 식구가 된 것은 SK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오랜 꿈을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30년 전 최중현 회장의 못다 이룬 꿈을 언급했다.

최태원 회장이 1998년 취임할 당시 SK 그룹은 매출 37조4000억원, 순이익 1000억원, 재계 순위 5위였지만 현재는 매출 158조원, 순이익 17조3500억원, 재계 순위 3위로 성장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더 강해진 OECD 韓 경기 전망

# '경기선행지수' 15개월째 하락...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

0.2%p ↓ ... 6개월만에 최대낙폭 통계청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한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기지수의 하락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는 진단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다.

12일 OECD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했다.

OECD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OECD는 한국은 행·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지수를 산출한다. 통상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지수가 꾸준히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면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3월 100.98로 정점을 찍고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했다. 이보다 더 길게 지수가 하강했던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이 유일하다. 하락 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올해 2월까지 매월 0.1포인트 내외로 하락했던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3월 99.93으로 100이 붕괴하면서 0.2포인트로 낙폭을 넓혔다. 가장 최근인 6월은 하락 폭이 0.3포인트까지 커졌다.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OECD 회원국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1월 100.23으로 정점을 찍고서 12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했다. 4~6월은 100 이하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하락 시점이 최근이고, 하락 폭도 한국보다 작다는 점이 차이이다. 다른 국가보다 한국 경기가 더 먼저 더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악화일로다.

6월 산업생산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2월부터 4월까지 하락하다가 5월 보합을 나타냈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다수의 경기지수가 일제히 경고음을 내는 것은 그만큼 경기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이다.

조선업·자동차 등 심화하는 주력산업

의 위기,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등은 반전의 기회를 찾기 쉽지 않은 난제로 꼽힌다.

수년째 회복되지 않는 일자리, 반도체

기계 수입이 주춤하면서 휘청대는 투자, 회복세가 더딘 중국인 관광객 등은 서둘러 대응이 필요한 위기 요인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태원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침체된 번호이동 시장에 '갤럭시노트9' 구원투수 될까

오늘부터 이통3사 예약판매 돌입

**SKT** 통신비 자동할인·신용카드 혜택  
**KT** 아이콘X·무료 데이터 제공 등  
**LG U+** 프로모션·사은품 선택 수령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올해 들어 잠잠한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갤럭시노트9 출격으로 파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1일 갤럭시 노트9 국내 출시를 앞두고 13일부터 사전예약에 나선다. 갤럭시 노트9의 출격가는 128GB 기준 109만4500원, 512GB 기준 135만3000원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식 출시까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갤럭시 노트9이 그간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갤럭시 노트9은 지난 3월 '갤럭시 S9' 출시 이후 선보이는 삼성전자의 전략 프리미엄폰이다. 지난 10일 새벽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갤럭시 노트9은 전작 대비 0.1인치 커진 6.4인치 인피니트 디스플레이



모델들이 SK텔레콤의 '갤럭시 노트9' 예약판매 진행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와 다이아몬드 커팅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블루투스를 탑재한 S펜은 리모트 컨트롤 기능으로 셀카 촬영,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이동, 음악 재생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또 반투명 사진을 밀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PENUP 기능, 꺼진 화면 메모, AR이모지에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 등 S펜 기능도 확대했다.

이동통신사는 갤럭시 노트9의 출시로 번호이동 시장에 반동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번호이동 건수는 월 평균 50만건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잠잠

했다. 정부의 잇따른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스마트폰 유통 시장이 축소되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번호 이동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5.7% 줄어든 46만1004건으로 집계됐다. 50만건을 넘은 것은 '갤럭시S9'이 출시된 3월 뿐이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실으며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전국 13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9 체험존을 운영한다. 방문 고객은 S펜에 추가된 블루투스 리모콘 기능을 이용해 '옥수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상 되감기, 일시 정지 기능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1번가, 이마트 등 제휴처 이용 금액에 따라 통신비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적척할인'을 마련했다. 24개월간 최대 35만48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별도 이용료 없이 결합할인, 신용카드 할인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T삼성카드V2'를 이용하면 24개월간 최대 45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24개월간 월 1만

5000원 청구할인을 제공하고 캐시백 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KT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KT스퀘어를 비롯한 전국 1000여개 S·Zone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9을 전시하고 사전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512GB 모델을 사전예약하고 25일까지 개통한 고객에게는 사은품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아이콘X가 제공되며,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 비용(50%, 2회 한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28GB 예약가입 고객은 8월 개통고객 공동혜택으로 AKG헤드폰 혹은 듀얼충전기+보조배터리 가운데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갤럭시노트9으로 인기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아이템과 무료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KT 플레이게임'을 최초로 선보인다. 'KT 플레이게임'이란 KT 갤럭시 노트9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단말기에 탑재된 인기 게임 4종(FIFA ONLINE 4 M, 검은사막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오버히트) 실행 시 스페셜 아이템(FIFA 5종쿠폰, 팻상자, 구사일생 후라이팬 스킨, 전설영웅쿠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게임 구동 후 플레이에 소모되는 데이터가 과금되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S펜을 활용해 휴대폰에 일상을 그린 '나의 일상을 S펜으로 그리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고객들은 노트9에서 MMS로 받은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면 프로모션 참여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내부 심사와 대고객 투표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다. 우수상으로 뽑힌 고객들은 PS4 PRO VR플레이트, 까미노 볼트 전기자전거, 바다프렌드 뉴크루즈 파워 등 경품이 제공된다.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노트9을 예약하면, ▲브리즈 블루투스 이어셋 ▲듀얼 고속 무선충전 패드 ▲스웨이블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모션 감지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올리브영 상품권 등 6종의 사은품 중 1가지를 선택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로 눈에 띄는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마트폰 성능 상향 평준화로 인해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 등으로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갤럭시노트9 전세계 출시 홍보



세계 곳곳 '갤럭시노트9' 대형 옥외광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 공개 직후 미국, 영국 등 주요 도시에서 대형 옥외광고를 진행하며 글로벌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갤럭시 노트9은 한 단계 진화한 스마트 S펜, 촬영 장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색감을 조정해주는 인텔리전트 카메라, 4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외장 메모리 사용시 최대 1TB 용량을 지원하는 메모리 등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갤럭시 노트9은 8월 24일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대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러시아 모스크바 하이테크프로젝트 옥외광고의 모습.



## 싱가포르서도 이어진 출시 행사

파워 워드 더 스타·갤럭시 스튜디오 등 혁신 기능 소개·소비자 체험 공간 마련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유명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의 초대형 식물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 갤럭시 노트9 출시를 알리는 파워 워드 더 스타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현지 미디어·거레션·소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현지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가수 김중국과 배우 박민영이 참석해 갤럭시 노트9의 혁신 기능을 직접 소개했다.

가수 김중국은 갤럭시 노트9의 스마트 S펜을 활용해 참석자들과 함께 셀피를 촬영했다. 본인이 S펜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팬들에게 선보였다. 배우 박민영은 개인의 바쁜 일상과 스케줄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에 참석한 배우 박민영이 팬들과 갤럭시 노트9으로 셀피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을 활용해 관리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삼성전자는 25일 갤럭시 노트9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15일부터 싱가포르의

상업 중심지 비보시티에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노트9뿐 아니라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 워치,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4 등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을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삼성전자는 현지 출시에 맞춰 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명 캠페인을 통해 10만명 참여 목표를 달성할 경우 노인을 위한 병원과 복지재단 등 5곳에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동남아 소비자들을 이목을 집중시킬 출시 행사를 진행한다. /안병도 기자

## 차 안에서 좌석마다 다른 노래 즐긴다

현대·기아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기술 강화... 편의성 ↑

현대·기아자동차가 엔터테인먼트 기술 강화를 통해 탑승객들의 편의성 높이기 나선다. 같은 자동차 안에서 좌석마다 서로 다른 음악을 간섭 없이 들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12일 차세대 음향 기술인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SSZ)의 기술 설명자료를 자사 미디어 채널인 HMG 저널과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클래식을 좋아하는 부부와 최신 팝송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 간에 음악적 취향이 달라서 보통 아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원하는 음악을 듣는다. 이런 상황은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단절된 느낌을 갖게 한다. 하지만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탄다면 대화를 하면서도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독립음장 제어



이강덕 연구위원(오른쪽)과 연구원들이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시스템은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등 차량 내 각 공간에서 독립된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음장을 형성·제어하는 기술이다. 차량에 내장된 여러 개의 스피커가 동시에 다른 음향을 낼 때 나오는 소리의 파장을 서로 감쇄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좌석별로 원하는 소리가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좌석에서 다른 음악을 틀어도 음이 중첩해 들리는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마치 방음시설을 구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양성문 기자 ysw@

## 포스코대우, 친환경 생활문화 위해 보틀 제공

포스코대우가 정부의 페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한다.

포스코대우는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용 보틀을 지급하고, 직원들이 사옥 내 입주사 매장에서 보틀을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이 회사의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지역 랜드마크 빌딩으로 알려진 포스코타워 송도사옥에 입주한 식당과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 포

장재로 변경하고, 사옥 내 쓰레기 분리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회용품 사용과 배출을 줄여나가는 데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번에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보틀은 회색, 파랑, 주황 등 세가지 색상으로 제작했으며 사전에 본부별로 색상을 추천해 선정하는 등 캠페인 동참에 재미를 더했다. 직원 개인의 영문 이니셜을 삽입해 배포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이 이번 환경보호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중점을 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온·보냉 기능을 갖춘 고성능 제품으로 보틀을 제작했다. /양성문 기자

# 유가 상승에 '정유 빅4' 성적표 'A'... 영업익 2조 돌파

**정유업계 2분기 실적**  
**SK이노** 석유 실적 견인 8516억  
**에스오일** 재고 이익 포함 4025억  
**현대오일뱅크** 래킹효과 등 3136억  
**GS칼텍스** 재고이익 증가 5846억



국내 정유 빅4가 정제마진 하락 속에서도 유가상승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

내 정유 빅4의 올 2분기(4~6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총 2조1524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3조4380억원, 영업이익 8516억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상반기 정유·비정유부문 모두 고루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1분기에는 화학제품 스프레드 강세로 화학사업 중심의 비정유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면, 2분기에는 정제마진 약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변동 및 IMO2020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차별화된 실적을 거둔 석유사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오일은 2분기 매출액 6조31억원, 영업이익 402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이 전분기 대비 배럴당 1.5달러 하락했음에도 유가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약 1700억

원이 반영됐다.  
 현대오일뱅크는 매출 5조4532억원에 영업이익 3136억원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래킹효과와 재고 관련 이익 증가 영향이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GS칼텍스는 매출액 9조579억원, 영업이익 5846억원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와 1분기에 실시한 정기보수가 4월 중 마무리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한 2분기 판매물량에 따른 결과다.  
 정유 4사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지난 1분기(1~3월)보다 좋은 실적을 냈다. 국제 유가 상승 덕분에 재고이익 효과를

본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3분기에도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분기에 급격하게 하락한 정제마진의 경우 오름세를 지속 보이고 있다. 높은 정제마진은 곧 정유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계절적 수요 증가와 미국 업체들의 정기보수로 인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 역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형모 이베스트 애널리스트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대한 수요 호조와 중국 티팟업체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가동을 하향으로 수급 타이트가 예상된다"며 하반기 정제마진이 견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40%대 고도화율 달성... 초고도화시대 연다”

**현대오일뱅크 SDA 공정 완공**  
 경유·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생산 ↑



SDA공정 전경.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정유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한 SDA(일산8만 배럴) 공정을 완공했다고 12일 밝혔다.  
 SDA는 잔사유에 프로판, 부탄, 펜탄 등 용매를 혼합해 아스팔텐 성분을 제거한 후 DAO(De-Asphalted Oil)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DAO를 고도화 설비 원료로 투입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달부터 정유설비와 고도화설비 증설 마무리작업도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 증설 증설작업이 완료되면 일일 정제능력은 56만 배럴(현대케미칼 일산 13만 배럴 포함)에서 65만 배럴로

고도화설비 용량은 하루 16만 5000 배럴에서 21만 1000 배럴까지 늘어난다.  
 고도화설비 용량과 단순정제능력 간 비율을 나타내는 고도화율은 40.6%까지 높아진다. 국내 정유사 중 40%대 고도화율을 달성하는 것은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이다.

SDA 및 고도화설비 증설 작업이 완료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고유황 중질유 대신 수요가 증가하는 경질유 생산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중동산 원유보다 고유황 중질유 성분이 많아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초중질 원유도 더 투입할 수 있다. IMO규제가 강화되면 중동산 원유와 초중질 원유의 가격차는 더 벌어져 초중질 원유의 경제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로 인한 정제마진 개선효과가 연간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SDA공정에서 생산되는 DAO는 고도화설비 뿐 아니라 윤활기유,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기존 공장 증설작업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상업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KT 직원들 및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 KT, 브라질서 5G 기반 IoT 기술시연

**국가통신연구소 직원 대상 세미나**  
**5G 기반 IoT 실증 단지 구축 협력도**

KT가 9일~10일(현지시간) 양일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산타리타시에서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5G 및 LTE 기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시연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한국-브라질 IT협력센터를 통한 공동 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한-브라질 IT협력센터는 2017년 개소해 3년간 브라질 정보화 프로젝트, 시험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4월 열린 제2차 공동운영위원회에서 5G,

LTE와 IoT를 활용한 실증 환경 구축 사업을 위해 추진할 과제로 선정하고 수행 기업으로 KT로 선택했다.  
 KT는 이번 세미나에서 평창에서 선보인 5G 네트워크 통신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알렸다. KT의 미래융합사업 중 커넥티드 드론과 기상센서 등 최첨단 IoT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브라질 현지 네트워크와 연계해 커넥티드 드론을 통한 영상 전송과 IoT 기상 상태 측정 기술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KT는 이후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와 5G와 LTE 네트워크 기반 IoT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브라질에 5G 기반 IoT 실증 단지 구축을 도울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유플러스**  
**5G 구현 가상화 플랫폼**  
**통신사 최초 'OVP' 인증**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가상화(NFV) 플랫폼에 대해 통신사 최초로 개방형 플랫폼 인증 프로그램(OVP)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OVP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력그룹인 OPNFV에서 정의한 기능과 검증의 업계 기준치를 제공한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무중단, 자동 복구, 신속한 신규 서비스 제공 등 215개 항목의 기준을 통과한 가상화 플랫폼에 대해 OPNFV가 OVP 인증을 발급한다. 기업용 가상화 플랫폼(명칭 LTE 기업전용망 서비스)이 인증 대상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증을 확보한 테스트 역량과 솔루션을 국내 장비회사들에게 공유해 국내 가상화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내 장비회사들이 가상화 플랫폼이 운영될 환경에서 직접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마곡LG 사이언스파크내에 네트워크는 물론 서버 등 장비, 자동화된 검증 툴 등을 갖췄다.  
 또 LG유플러스는 내년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5G에서 구축하는 모든 가상화 플랫폼에 대해서도 OVP를 적용해 안정성 검증은 물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 “T로밍 개편으로 로밍 요금 40% 줄었다”

**SKT 데이터·음성 이용량은 늘어**



고객들이 공항에서 SK텔레콤의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3월 로밍 서비스 개편 이후 로밍 이용자 평균 요금이 기존 2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약 40% 절감됐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데이터·음성 로밍 이용량은 늘었다. 올해 로밍 이용 고객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 음성 로밍 사용량은 20% 이상 증가했다.  
 SK텔레콤 측은 “지역맞춤형 요금제 제공 국가 확대와 ‘전 세계 매일 3분 무료 통화’ 등 자동안심T로밍 도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SK텔레콤은 미주·유럽 패스를 출시해 지역 맞춤형 요금제 제공 국가를 기존 26개국에서 85개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SK텔레콤은 T로밍 고객이 방문하는 국가의 95%를 차지하는 세계 85개국서 지역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로밍 서비스 이용 고객 중 지역 맞춤형 요금제 선택 비율은 65%로 올해 초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SK텔레콤이 출시한 자동 안심 T로밍 중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매일 3분 무료 통화’는 올 3월 이후 현재까지 19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많은 이달 중 210만 명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최근 실시한 SK텔레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밍 이용 고객은 매일 3분 무료 통화 혜택을 주로 ▲국내 가족과 안부 전화 ▲한국에서 발신한 전화 수신 ▲현지 식당 문의·예약 등 용도로 이용했다. 업무상 통화보다는 주로 여행 중 간단한 통화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들어 로밍 이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만 18~29세 고객으로 로밍 이용자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만 18~29세 고객 증가는 지역 맞춤형 요금제를 이용 시 데이터 1GB를 추가로 제공받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티웨이항공 대구~러시아 ‘8만원대 특가’ 이벤트 (편도)

오늘 10시부터 9월 30일까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티웨이항공이 대구발 러시아 노선의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가 이벤트는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대구에서 단독으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2개의 러시아 노선이다.  
 탑승기간은 8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하바롭스크 8만 8590원부터 ▲블라디보스토크 9만 3710원부터다.  
 특히 2개의 러시아 노선을 운영하는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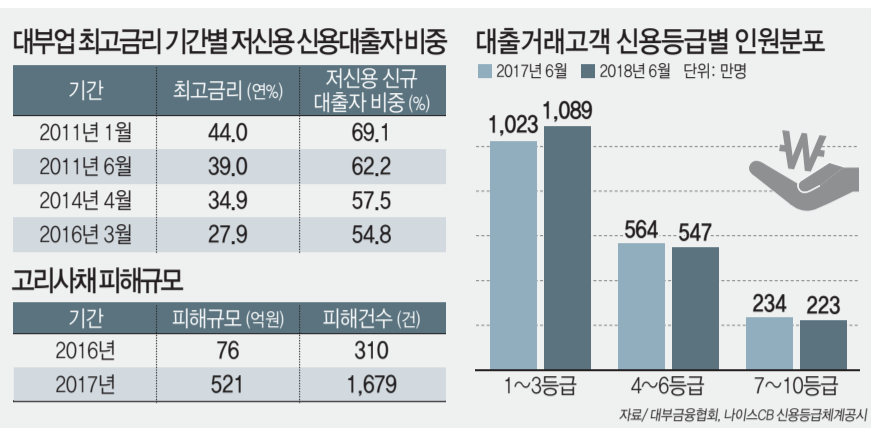
큼 티웨이항공의 다구간 여행을 이용하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두 도시를 모두 즐기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특가 기간에 두 노선(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경우 야간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운임 3만원 할인 쿠폰과 위탁수하물 2만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쿠폰은 스마트 운임 이상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성문 기자 ysw@

# 최고금리 인하 → 대출심사 강화... 벼랑 끝 '저신용자'

저신용자 불법 사채시장 내몰려  
고리사채 피해 전년 比 50배 급증  
“대출 대상 따라 금리 달라져야”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몸살을 앓아온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낮은 금리에 따라 대출심사가 강화돼 저신용등급 대출자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기회를 잃은 금융 소외자를 위한 대출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나이스신용평가 신용등급체계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3등급의 대출 거래 고객은 총 1088만 61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2만 8730명)에 비해 65만 7459명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등급으로 불리는 7~10등급 대출거래 고객은 지난해 233만 7783명에서 올해 222만 9343명으



로 5%(10만 8440명) 가량 감소했다. 대출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대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저신용자의 대출거래가 줄어든 이유는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위험부담이 큰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줄이고 있는 것.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반인은 대

출금리의 고저를 기준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데 반해 저신용자는 대출심사 여부가 관건”이라며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의 대출심사도 강화돼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갈 곳은 불법대부업체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길거리에 간편대출이라는 불법대부업체 광고지가 던져져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8만명 감소한 반면 불법 사채 이용자 수는 33만명 증가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고리사채 피해 건수는 1679건으로 1년 전 310건보다 50배 이상 급증한 것

로 집계됐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76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폭증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불법대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인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는 이자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저신용자들은 벼랑끝으로 몰릴 수 있어 정책당국이 관련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주요국에서는 과도한 이자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거나 같은 상품이라도 대출 규모,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별로 이자율 상한이나 대출 가능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설정할 때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상대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 건강인 할인특약·무해지환급형 활용해야

### 금융꿀팁 200선

#### 종신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종신보험은 가입 이후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다. 그러나 건강인 할인 특약나 무해지환급형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으로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 등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종신보험도 연금전환 기능이 있지만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

료와 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적립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가입 목적과 재무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도 종신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싸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은퇴 전인 60세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더 유리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비(非)흡연자나 정상혈압인 경우 통상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의 2~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에 가입하는 것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테슬라 상장폐지 우려 속 주가 ‘요동’

### 국내 투자자 보호는 ‘수수방관’?

국내투자자 투자금 9303만 달러

증권유관기관 시스템 정비해야

테슬라가 상장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는 대책없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유관기관이 해외 주식 권리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투자자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총 9303만 3275달러(약 1050억 8108만원)로 미국 상장사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수,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테슬라 “비상장 전환 검토 중”

지난 7일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시세보다 20% 비싼 가격으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되사 상장폐지하려 한다는 트윗에 이날 테슬라 주가는 11%나 치솟았다.

하지만 테슬라 상폐를 위해선 약 700억 달러(약 79조원)가 필요한 만큼 테슬라의 자금 조달 여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가는 다시 이틀 연속 하락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연합뉴스

상승폭을 되돌렸다.

사흘간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면서 미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인 칼만 아이작스와 윌리엄 챔벌레인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주가를 떠 올린 것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증권당국은 머스크의 트윗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 해외주식 상폐 대응은?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 상폐에 따른 국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유관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상장지수펀

드(ETF)의 4대 1 주식 병합을 흠트레이딩시스템(HTS)에 곧장 반영하지 않아 시장에 ‘유령주식’을 유통시켰다. A투자자의 보유물량이 665주에서 166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전량을 시장에 매도한 탓이다. 현재 물량을 시장에 매도한 투자자와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에 따른 책임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와 해외증권을 보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의 주식 병합,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예탁원은 해외 주식 권리 변화 내역을 단순히 증권사에 전달하고, 상당수 증권사는 이를 수기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노후자금 목적 ‘종신보험’은 NO!”

### 금감원 Q&A

**Q** 최근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가입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연금보험보다 금리는 높으니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인데,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A**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에 적합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적립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비용·수수료를 차감한 만큼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니 주의하세요.

또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더라도 연금보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 몸무게/키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은 다르지만, 통상 납입보험료의 2~8%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신한카드

### 마케팅 플랫폼 무료제공

신한카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역량을 모아 개발한 마케팅 플랫폼 ‘신한카드 마이샵(MySHOP)’을 무료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마이샵은 빅데이터 분석과 AI에 기반

한 고객 매칭 알고리즘으로 고객이 가장 선호할 혜택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이다. 가맹점주는 마이샵과트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쿠폰발행과 이벤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이샵에서는 매장의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이용 패턴 등 복잡한 매출 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실행한 마케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마이샵은 다양한 가맹점 운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휴대전화 번호에 기반한 포인트·스탬프 적립 시스템을 탑재해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이샵을 통해 2200만 고객에게 최적화된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리는 일  
KT가 스카이십으로 함께합니다**

KT는 5G 기술로 중증외상센터, 정부와 함께  
국가 재난안전망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오늘의 기술

**Hi Five! 5G**



대한민국 생명을 지키는  
**KT 5G 스카이십**



■ 유사시 재난지역의 통신망을  
복구하는 이동식 기지국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조난자 수색 및  
해상 구조활동 지원



■ 재난현장을 360도 카메라 및  
AR글래스를 통해  
비상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

PEOPLE. TECHNOLOGY. **kt**

# 재개발 속도내는 알짜배기 노량진... '동작구의 심장' 부상

## 리포

### 노량진뉴타운 일대 가보니

용산·여의도 개발에 수혜 기대감  
교통요지·한강 조망권까지 확보  
평당 7000만원까지 집값 상승세

서울 노량진의 집값이 빠르게 뛰고 있다. 노량진 뉴타운이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기 시작한 영향이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에 따른 인접 지역 수혜 기대감도 반영됐다. 이미 평당(3.3㎡) 70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노량진이 동작구의 집값을 견인하는 분위기다.

#### ◆노량진뉴타운, 고시촌의 반격

지난 10일 오후 찾아간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일대엔 낙후된 건물들이 즐비했다. '고시촌' 이미지답게 곳곳에 고시원이나 원룸 등의 숙박시설과 학원가가 눈에 띄었다. 서울의 요지 중 한 곳이지만 아파트보다는 적색 벽돌을 사용한 오래된 주택들이 즐비해 있었다.

인근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노량진뉴타운은 주민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다"며 "그러나 워낙 위치나 교통여건이 좋아서 개발만 되면 끝내주는 동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노량진은 노량진역(1·9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 3대 업무지구까지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한강이 가까워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개발만 되면 '동작구의 심장'이 될 것이라 기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표현이다. 노량진은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 뉴타운 사업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09~2010년 구역이 정해졌고, 지난해 말 8개 모든 구역에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본격도에 올랐다.

최근 흑석뉴타운과 신길동 뉴타운 사업의 성공에 탄력을 받은 영향이다. 여기에 이달 서울시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수혜지역으로 손꼽힐 전망이다.

최근 흑석뉴타운과 신길동 뉴타운 사업의 성공에 탄력을 받은 영향이다. 여기에 이달 서울시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수혜지역으로 손꼽힐 전망이다.

최근 흑석뉴타운과 신길동 뉴타운 사업의 성공에 탄력을 받은 영향이다. 여기에 이달 서울시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수혜지역으로 손꼽힐 전망이다.

최근 흑석뉴타운과 신길동 뉴타운 사업의 성공에 탄력을 받은 영향이다. 여기에 이달 서울시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수혜지역으로 손꼽힐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곳곳에 재개발 조합 등이 들어서 있다.

대부분 (이해관계 등이) 해결돼서 8구역은 곧 사업성 인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7구역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매물 품귀현상에 '평당 7000만원'까지 노량진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괜찮은 매물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진행 속도가 빠른 구역은 가격이 심하게 올랐고, 이마저도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6구역의 경우 평당 7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C부동산 중개업자는 "6구역은 최근에 평당 6000만원 이상에 거래됐고, 한 때는 7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며 "이구

역은 201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때 때문에 피(프리미엄)가 2억 5000만원에서 4억원 이상까지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인근 흑석뉴타운 등에서 투자를 못한 이들이 투기 세력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며 "집 하나가 높은 가격에 매매가 체결되면 일대 집주인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3구역과 6구역은 매매 물건이 없었다. 7구역은 16평대 빌라가 6억5000만~8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었다.

D부동산 중개업자는 면적은 작지만 평

당가가 3700만원 정도라며 "좋은 매물"이라고 권유했다. 그는 "전세로 1억4000만~1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투자금은 4억6000만원인 셈"이라며 "물건이 나오는 족족 팔리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에 노량진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도 함께 뛰고 있다.

신동아리버파크는 84.88㎡ 타입이 올해 1월 5억5700만원~5억9900만원(3층)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엔 7억원(5층)까지 올랐다. 건영(103동~106동)도 같은 기간 84.94㎡ 타입 거래가가 5억6000만원~5억7000만원(9~14층)에서 6억2500만원(2층)으로 뛰었다.

글·사진·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주간펀드동향

### 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순자산 상승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과 순자산이 늘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8월3일~9일)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전주 대비 1.48% 상승한 2303.71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기간 외국인은 3393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는 전주 대비 0.86% 상승한 2166.15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EM 지수는 전주 대비 1.15% 상승한 1079.73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1.25% 상승했다. 인덱스주식형(지수추종)을 중심으로 자금유입이 이뤄지면서 순자산은 36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탓에 전주 대비 0.39% 소폭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북미(1.36%), 베트남(1.21%), 중화권(0.88%)이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러시아(-4.12%), 신흥유럽(-3.67%), 친디아(-1.46%) 펀드는 동일 기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이에 순자산은 600억원 증가했다.

한 주간 가장 성과가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한국투자한국외국4차산업혁명증권투자자산타 1(주식)(C-e)'(3.18%)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미래에셋인텍스르차이내H레버리지2.0증권투자자산타(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E'(5.61%)가 수위를 차지했다. /손영지 기자

## '갤노트9' 출시 효과...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대

### 株라쿨라의 종목

#### 파워로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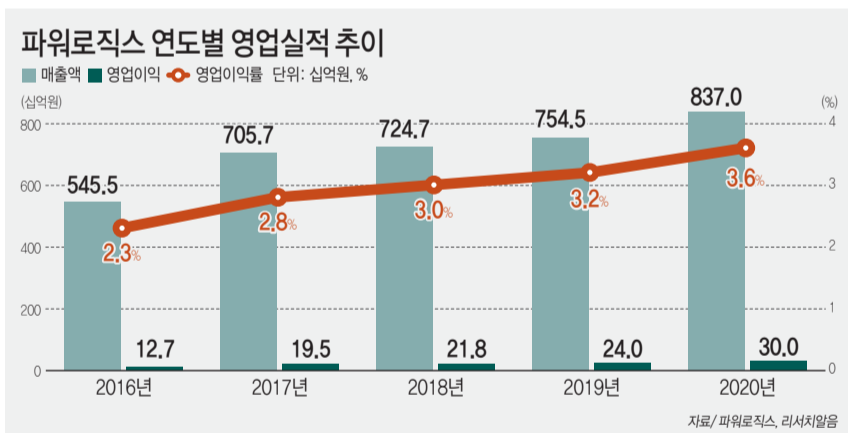
#### 갤노트9 전면카메라 초도물량 선점 후 카메라 모듈 시장 진출 본격화

"오늘부터 갤럭시노트9의 예약판매가 시작된다. 스마트폰 부품 업계의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살아남은 업체들의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2일 갤럭시노트9의 전면 카메라 초도물량을 대부분 선점한 것으로 알려진 '파워로직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같이 밝혔다.

파워로직스는 카메라 모듈과 배터리 보호회로 전문업체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 출시된 갤럭시S9의 판매량이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 2분기 동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가량 하락하며 영업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했다.

하지만 최 연구원은 파워로직스의 주가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번주부터 본격 판매되는 갤럭시노트9이다.

최 연구원은 "갤럭시노트9의 흥행이 예상되고 있다"며 "파워로직스는 갤러

시노트9의 전면 카메라 초도물량 대부분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부진을 딛고 연말까지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이다.

향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가 듀얼에서 트리플로 전환될 계획이라는 점 역시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연구원은 파워로직스가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파워로직스는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최 연구원은 "파워로직스는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 상용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시제품 생산을 완료한 가운데, 양산 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영업 외적인 리스크 발생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산손상차손과 외환손실로 100억원 규모의 영업외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까지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처리해 추가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파워로직스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7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56.1%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셋째 주에도 쉬어가는 분양시장... 전국 1838가구 공급

### 분양캘린더

#### 지방에서만 1827가구 물량 풀려

8월 셋째 주에도 분양 시장이 쉬어간다. 서울의 장기전세 물량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만 분양이 이뤄진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에서 총 1838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장기전세 1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

두 지방 물량이다.

강원 춘천시 약사동 '약사지구모아엘가센텀부', 경북 상주시 냉림동 '북천코아루트트리움' 등 10개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4곳에서 문을 연다. 한화건설은 오는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66-6번지에서 '상계꿈에그린' 건본주택을 개관한다.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상계주공8단지

를 재건축한 '상계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30층, 16개 동, 전용 59~114㎡, 1062가구가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92가구다.

한라공영도 같은 날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11번지에 '대구역한라하우스센트럴' 모델하우스를 연다.

이 단지는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144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36층, 2개동, 아파트 256가구, 오피스텔 32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 단일면적이며 오피스텔은 전용 29~53㎡로 이뤄진다. /채신화 기자



춘천 '약사지구모아엘가센텀부' /홈페이지 캡처



# 南北정상회담, '8월말·평양' 유력?... 오늘 합의 가능성

## 오늘 남북고위급회담

조명균 장관 등 남측대표 4명 참석  
4·24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  
청와대 "제3의 장소 가능성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방명록에 글을 작성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옆에서 있다. /청와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도 8월 말로 잡힐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대한다는 언급이 단순한 기대이나, 아니면 협상에 근거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을 거론하고 방북단이라고 한 게 평양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제가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지만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것은 원론적인 말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언론이)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남북이 내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다만, "지금 시구나 장소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말한 대로 시기·장소·방북단 규모에 대해 내일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선부르니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13일 회담에서 이달 말 회담을 제안할

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남북 당국은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도 회담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남북 사이에 이미 여러 공식·비공식적 채널이 많이 있지 않으나"면서 "실무회담만 해도 몇 가지가 굴러가고 있는지 손꼽기 어려울 정도인데 여러 채널을 통해 내일 회담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과도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말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과 정보를 교환·협의를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미국쪽 반응에 대해 들은 바 없으나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대표단에 철도·도로 등 경험 관련 인사들이 있는데 경험 진전이 더딘 데 대한 항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묻자 "철도·도로·삼림 분야에 대한 실무 협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도 얼마든지 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우리 대표단 4명 외에 실무 수행원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도 같이 가기에

현장에서 어떤 의제가 나와도 협의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남판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 김 대변인은 "남 차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동행하는 차관급으로서, 청와대의 관련 업무 담당자이고 비핵화 문제와 4·27 합의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선순환을 하기 위한 회담으로,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을 촉진하고, 북미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고위급 회담엔 우리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판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온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보험상품, 투자상품과 동일하게 보면 안돼"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주요쟁점

금융위, 연내 법제화 목표 추진  
소송중지 제도 등 세부내용 이견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국회 법제화를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다수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통합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체계화했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양승헌 연구위원은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가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추진과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양 연구위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과 관련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다수 가입자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원본 손실

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상품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에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정안은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

소송중지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중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조정절차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소송중지 여부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소송이탈 금지제도와 관련해선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제기가 금지된다"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면서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은 지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1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어 불완전 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신금융협회에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전액 부담과 수수료율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대해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확대방안 추진

〈연매출 2400만원~3000만원〉

### 내일 소상공인 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 타격 자영업자 지원 카드수수료혜택 일부확대 방안 검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렸다.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광주, 화성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촌과 남대문, 안암동, 후암동 소상공인을 만나 점검한 결과, 이 일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례로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580만원을 내는 후암동의 한 고깃집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4000만원에 달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단,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으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일손 덜어줄 ‘로봇’의 성장... 금융권 RPA 바람 분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

## 디지털금융 2라운드 RPA

### (上) RPA 도입 가속화

은행권, 챗봇·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나서  
24시간 365일 자동응대로 운영비용 절감  
2022년까지 은행 매출 34% 증가 예측도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가 금융권 디지털 혁신의 성패를 가늠할 변수로 떠올랐다.

RPA는 사람이 하던 표준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반복되는 문에 답해주는 ‘챗봇’도 고객서비스 분야 RPA의 하나로 대출이나 발급 등 기본적인 은행업무뿐 아니라 자금세탁 모니터링이나 사이버보안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RPA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맞물리면서 국내 은행들이 일손을 덜어줄 RPA의 도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 ◆은행권, RPA 적용 확대

은행권에서 RPA가 가시화된 분야는 챗봇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고객서비스다. 24시간, 365일 자동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

카카오특과 연계한 금융봇을 선보인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챗봇과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은행업무에 대한 RPA 적용이 가속화됐다.

신한은행은 올 3분기까지 총 8개 업무에 RPA를 적용토록 추진 중이다. 현재 파생한도 점검 및 거래내역 작성 자동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송 자동화 등 5개 업무는 적용을 마쳤고, 나머지 3개 업무도 9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공동 RPA 솔루션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기업대출 심사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그룹사의 RPA 요구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솔루션을 선정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기업어신 실행을 비롯해 중개업소 조사가격 적정성 점검, KB 매직카 중고차 시세 정보 수집 등 자동화 효과가 높은 업무에 RPA를 적용해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기업어신 자동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달 관련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창립 57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디지털코어 뱅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인공지능으로 펀드를 관

리해 주는 ‘아이원 로보’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포털’, 영업점 일손을 덜어주는 RPA 등 최고의 스마트뱅킹과 온라인 브랜치, 그리고 고객 스스로 청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셀프뱅킹’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한 발 앞선 글로벌 은행 RPA 도입

글로벌 은행들의 RPA 도입은 한 발 앞섰다.

RPA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이미 로봇이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PWC의 설문에서 글로벌 은행들은 RPA로 인해 오는 2022년까지 은행 매출의 34%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경영진의 72%가 RPA가 미래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답했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스웨덴뱅크의 ‘나나’가 매일 약 3만건의 문의를 처리하며, 78%의 응답완료율을 기록했다. BOA는 ‘에리카’라는 가상의 비서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업무 편의성 지원을 위해서는 JP 모간이 계약서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코인(Coin)’을 개발했고, NY 멜론뱅크의 경우 자금이체 서식을 RPA를 이용해 자동 전송 중이다. 모간 스탠리와 HSBC에서는 AI를 활용한 사기전담 팀을 구성했으며, 시티뱅크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coul.co.kr

JP Morgan	계약서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검토하는 Coin 플랫폼 개발
Wells Fargo	페이스북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한 채팅 봇을 통해 고객 상담
BOA	AI 금융비서 Erica를 출시하여 45백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채팅 서비스 제공
Citi Bank	머신러닝 플랫폼 ‘Feedzai’를 활용한 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U.S. Bank	RPA 등 금융내 시를 전담하는 직책 신규 설립, 25개주 전역에서 머신러닝 투자
NY Mellon Bank	회계공시 100% 정확도, 처리시간 88% 향상, 거래시간 66% 단축 등 결과 발표
Morgan Stanley	시를 활용한 금융사기 적발 전담 부서 설립
Deutsche Bank	뉴욕의 혁신연구소에서 RPA로 인한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결과를 발표
스미토모 은행	은행에 방문한 고객의 투자 및 자산 데이터를 자동수집, 분류 후 직원 송부
미츠비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서류관리, 은행간 거래, 국제송금 등에 RPA 프로그램 개발
미즈호 은행	투자신탁계좌 개설 시 RPA 활용, 건당 4~5분 소요되는 과정이 12초 내로 단축
HSBC	국제거래와 관련된 송장, 보증서 등 문서관리를 위해 IBM의 AI 기술 도입
RBS	고객 질의 및 요청시 담당직원을 스스로 판단하여 배정하는 Chat Bot 도입

# 기사 쓰고 로봇 만들고... “코딩이 제일 쉬웠어요” 백화점으로 간 ‘VR’... 가상현실로 고객몰이

## 르포

### 핀테크·금융 AI 체험

씽크폴 대표상품 ‘라씨’ 소개·시연  
50여명 학생 AI 프로그램 등 체험도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씽크폴 본사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 AI 체험활동’ 행사에서 학생들이 로봇 기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씽크폴 본사에서 열린 ‘핀테크·금융 AI 체험활동’ 행사가 열렸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 50여명의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배우고,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1부에서는 김정민 씽크폴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장이 씽크폴의 대표 상품인 ‘라씨’(RASSI·Robot Assembly System on Stock Investment)를 소개하고, 작용 원리를 직접 시연했다.

김 부소장은 투자를 쉬운 개념으로 풀이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투자란 물건을 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이익을 내는 행위”라며 “이익을 내기 위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씨는 이런 고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며 “사람 대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무엇을, 얼마나 살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라씨의 기능을 직접 보여줬다. 기업 실적공시를 화면에 띄우자 AI는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래프화 했다. 최근 3개년의 실적흐름을 분석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기까지 30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학생들이 기대하던 로봇의 형상은 없었지만 AI가 존재함을 증명하기엔 충분했다.

2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AI를 작동시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사진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유통업계, VR 기반 마케팅 ‘승부수’  
롯데백·현대백·GS리테일 등 도입

유통업계가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쇼핑 공간을 줄이고, 즐길 공간을 늘리면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를 매출 증대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가상현실 오락실 등 체험형 콘텐츠 공간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일 서울 건대점 10층에 1400㎡ 규모의 VR 체험관 ‘롯데몬스터 VR’ 실내 테마파크를 오픈했다. 롯데백화점이 가상현실 플랫폼 회사 ‘GPM’과 공동으로 문을 연 VR 테마파크 1호점이다.

이곳은 60개 이상의 VR 콘텐츠로 채워져 있으며, 래프팅과 번지점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몬스터 어드벤처’, 열기구와 제트기 탑승을 할 수 있는 ‘몬스터 판타지’, 다양한 가상현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몬스터 시네마’ 등의 주제로 나뉘어 구성됐다.

롯데백화점뿐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

매장도 VR 마케팅으로 고객몰이에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 모바일로 옮겨간 고객들을 매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실제, 이같은 마케팅은 집객 및 고객 체류 시간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9월 미니백화점 콘셉트인 엘큐브 흥대점에서 VR체험관을 운영하며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금광캐기, 승마경주, 외나무다리 등 VR기기를 설치한 이후, 기존 의류매장이 있던 때와 비교해 매출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0~20대 젊은 층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VR체험관 1호점을 선보일 지점으로 20~30대 매출 비중이 35%를 차지하는 건대점을 선택, 식당과 문화센터가 있던 자리에 VR체험관 1호점을 들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의 VR 체험매장 ‘버츄얼 아일랜드’도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일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해 월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편의점도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GS25를 운영 중인 GS리테일은 KT와 손잡고 지난 3월 서울 신촌에 도심형 VR 복합문화 공간 ‘브라이트’ 1호점을 오픈했

며, 6월에는 건대입구 상권에 2호점을 선보였다.

GS리테일의 브라이트 1호점은 오픈 이후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픈 후 약 3개월 만에 방문 고객 1만8000명을 돌파했고, 고객 수도 꾸준히 오름세를 그리고 있다.

유통업계의 체험형 마케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집객 효과 및 매출 증대까지 가능성을 본 만큼 즐길거리를 앞세운 마케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IT 사업부를 현대그린푸드에서 물적 분할해 별도 IT 법인인 ‘현대IT&’를 설립하고 사업 확대에 나섰다. ‘VR 전담 사업부’를 만들어 다양한 IT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0월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이 있는 강남에 VR테마파크 1호점을 오픈하고, 2년 안에 10개 이상의 대규모 VR테마파크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고객 집객 효과와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탁월한 VR 마케팅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면서 “VR 마케팅뿐만 아니라 VR 기술을 통한 수익사업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GS리테일이 KT와 함께 선보인 도심형 VR 테마파크 ‘브라이트’ 2호점. /GS리테일 스타필드 고양점 ‘스포츠포스터’ 내 VR존.



/신세계

595만원

금강산 길목, 주말 예약 99% (2주전예약), 등기제분양

# 금강산 오션리조트 분양!

여름 성수기 선착순 예약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통일전망대·화진포·송지호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 분양특전**
- 1) 연간 30일 사용
  - 2) 전국 9체인 사용 가능
  - 3) 주말예약 99% (2주전 예약시)
  - 4) 하계 성수기 예약 접수중
  - 5) 안전한 지분 등기제 분양

문의 : 02)541-0113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 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2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세부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 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면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국민은행 469301-01-127-122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 해발 3,000m 골프 라운딩

드라이버 거리 30 YARD 더 멀리!

**옥룡 설산 골프 5일 179만원**  
 (항공료, 식사, 숙박 2인1실, 그린피, 카트, 캐디피)

**해외골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레이크 사이드 C.C 5일 135만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식사, 그린피, 캐디비, 미팅 센딩비)

〈중국〉  
 위해 호당가C.C 3일 599,000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전동카트)  
 겨울 성수기 조기예약 특가 / 조기 마감 주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9일 139만원  
 (항공료, 5성급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트)

포함사항 : 골프 2회 (36H), 콘도 1박, 조식  
**국내골프 (7월말 ~ 8월 초 1박 2일)**  
 평창 휘닉스C.C 272,000원 ~  
 용평 버치힐C.C 285,000원 ~  
 해발 600m  
 횡성 웰리힐리C.C 27만원 ~  
 설악 썬밸리C.C 265,000원 ~  
 원주 오크밸리C.C 27만원 ~  
 여수 경도C.C 345,000원 ~

IL tour 02-541-4242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 건강 파트너

## 사우나 집에서 즐긴다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국내 출시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저온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5~6인용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2인용 290만원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농림, 캠핑 허우스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 양평 전원 주택지

대지 66㎡ 건축 125㎡ / 매가 4억 9천만원 (2층 철골)  
 대지 726㎡ 건축 125㎡ / 매가 4억 8천만원

<b>서종면 노문리</b> 7,723㎡ 12억 3.3㎡ 48만원	<b>서종면 수입리</b> 870㎡, 구옥 82㎡ (구옥) 매가 : 395,000,000원 3.3㎡/150만원 즉시 신축 가능
<b>옥천면 신복리</b> 대지 495㎡ 매가 : 175,000,000원 3.3㎡/110만원 토목공사 완료 전원단지 주차 박스	<b>서종면 노문리</b> 대지 300㎡ 매가 : 195,000,000원 3.3㎡/100만원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문의 02-543-1177

# “美·中 무역전쟁… 韓 ‘무역다변화’ 해야 생존”

##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없앤다” 추석 앞두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14일~9월 14일 진행된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승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으로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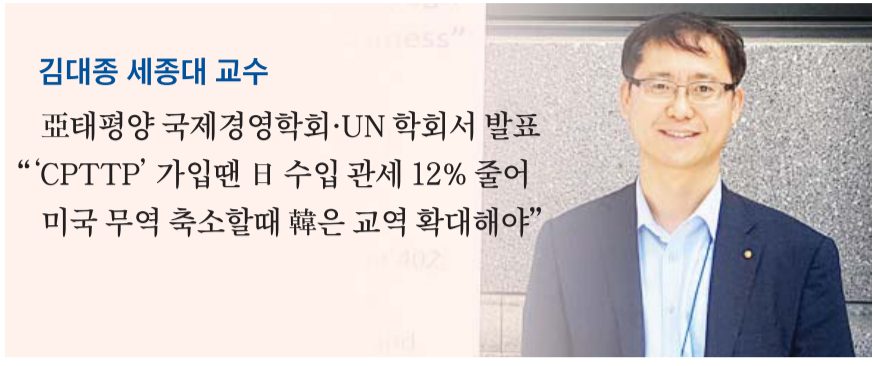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한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범중 기자 jaker@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무역다변화를 통해 생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사진)는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경영학회와 UN이 공동 개최한 ‘2018 APAIB-UN 공동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무역다변화이다’ 주제 논문에서 “2017년 기준 한국은 수출 5737억 달러, 수입 4784억 달러로 953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약 50조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무역을 축소하고 교역을 줄일 때, 한국은 교역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역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3월 칠레에서 체결된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김대중 세종대 교수**  
 亞太평양 국제경영학회·UN 학회서 발표  
 “CPTTP 가입엔 日 수입 관세 12% 줄여 미국 무역 축소할때 韓은 교역 확대해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는 등 무역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CPTPP에서 탈퇴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CPTPP 가입을 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관세 12%를 줄일 수 있다. CPTPP는 한국을 포함해 환태평양 11개국 중 6개국이 서명하면 자동 발효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농산물과 축산물 시장 일부 개방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에서 10배를 올려 2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의 자동차관세 인상이 실행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과 축산물 시장을 좀 더 개방하고 자동차관세는 2.5%로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신 “미국에 대한 자동차분야 수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운수업종 기업들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거 FT A 체결시에도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약

1000억 원을 피해 업종에 지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32%)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대만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국가 다양화해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은 아세안, 서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이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한국 경제는 중국의 반도체 상산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산업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교역확대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충돌을 계기로 한국은 무역 다변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교역 증가는 국내 생산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든다. 인구가 5000만 이므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만이 살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국토부-LH 국민 아이디어 공유·반영 ‘스마트 시티’ 사전 행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WSCW)’와 연계해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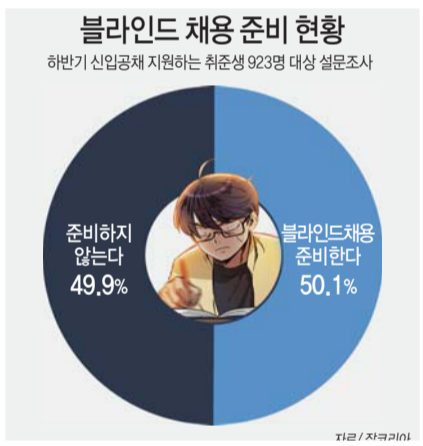
WSCW 사전행사는 ▲대국민 토론회 ▲해커톤 ▲공모전 3종(BI, 사진, 그림 그리기)으로 구성된다.

대국민 토론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민참여 방안,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오는 30일 세종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순으로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채보화 기자 chb@1010

# 취준생 75% “블라인드채용 준비 막막”

**잡코리아 취준생 923명 대상 설문**  
 10명 중 8명 “블라인드 지원할 것”  
 전형 대비법 1위 이력서·자소서  
 NCS 등 필기시험 준비 뒤이어  
 사회과학·경상계열 전공 많아



올해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려는 취준생 79%는 블라인드 채용전형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한다는 취준생은 이보다 적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취준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잡코리아가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는 취준생 92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9일까지 ‘블라인드 채용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3%가 하반기 공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기업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20.7%로 소수였다.

취준생 10명 중 7명이 블라인드 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블라인드 전형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이보다 적었다. ‘블라인드 채용 준비하고 있나?’라고 묻은 결과, 절반 가량인

50.1%만 ‘그렇다’고 답했다.

전공 계열별로 보면 ▲사회과학계열(59.1%) ▲경상계열(54.7%) 전공생 그룹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인문어학계열(42.1%), ▲이공학계열(48.1%) 취준생들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한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의 블라인드 전형 대비법(복수응답)은 ‘블라인드 이력서·자소서 준비(52.6%)’, ‘NCS 등 필기시험 준비(42.6%)’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인터넷 강의/학원 수강(28.1%)’, ‘블라인드 채용 관련 설명회 참석(23.8%)’ 등의 방법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블라인드 전형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복수응답)를 묻은 결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80.7%)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취업 스펙을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33.2%), ‘나에게 불리한 채용 전형이어서’(26.2%) 등도 블라인드 전형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 꼽혔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입공채 취준생 중 74.8%가 블라인드 채용전형 준비에 막막함을 느낀다고 답했다”면서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는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 전형이 확산될 지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88.0%)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공공기관 및 대기업 군까지 확산될 것이라 예측이 37.1%로 가장 많았고 ▲취업시장 전체에 확산될 것(31.0%), ▲공기업·공공기관에만 확산될 것(19.9%)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용수 기자

## 해수부 ‘수산 新유통망’ 만든다 소비자분산물류센터 추진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권역별 소비자분산물류센터 6개소를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분산물류센터(FDC)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라, 전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자로 직접 출하하기 위해 대도시 권역별로 구축하는 시설이다.

센터는 권역별로 수산물의 보관, 가공과 판매 등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수도권에 인천, 호남권에 나주 등 2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 1개소씩 총 4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소비자분산물류센터는 올해 11월께 인천 중구에서 착공돼 2020년 문을 열 계획이다. /이범중 기자

## ‘진술거부·번복’ 드루킹 조사, 송인배 소환서 돌파구 나올까

백원우 靑 민정비서관 소환 계획

드루킹 댓글조작 등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하면서 청와대가 내린 ‘혐의 없음’ 결론을 뒤집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12일 오전 강남 소재 사무실에 송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있는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간담회 참석비 200만원에 다른 목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에 낙마한 2016년 6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소개로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개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송 비서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6월~2017년 2월 4차례에 걸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만났고, 2016년 1월과 같은해 11월 현금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2016년 열린 4·13 총선에서 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을 만나 일상적인 지지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그가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수행총괄팀장을 지내며 드루킹과 추가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드루킹이 측근

인 윤모·도모 변호사를 대선캠프에 넣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받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9일~10일 이어진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논리적 허점을 드러냈다.

드루킹은 대질 조사에서 ▲김 지사에 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한 시기가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거나 ▲청탁 내용도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말을 바꾸고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직후 회식비 100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 조사를 마친 특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역시 소환할 계획이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거절한 김 지사를 협박한 드루킹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했다는 의심 받는다. /이범중 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 '지역화폐 유통' 허브 만든다

# 京畿시장상권진흥원 내년 7월 설립

내년 2월 조례제정 등 거쳐 운영  
소상공인 홍보·교육, 시·군 협업  
가맹점 확보 등 유통 활성화 역할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지역 화폐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전담할 경기 시장상권진흥원이 내년 7월 설립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성남 등 일부 시·군에서 유통하는 지역화폐의 도내 31개 시·군 전역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날 말 도의회에 제출하는 1차추경예산안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했다.

용역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 경기시·군 상권진흥원, 소상공인본부, 경기기획실 등 3개 본부로



경기도청전경.

/경기도

구성된도출연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신설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내년 2월 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례 제정과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화폐 가맹

점 확보, 소상공인 교육·홍보, 시·군 협업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화폐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복지포인트 등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coul.co.kr

## 광주·전남 6월 제조업 생산·고용 감소

전년비 광주 5.6%·전남 5.2% ↓  
고용자 수도 줄고 소비·수출 늘어

올해 6월 광주·전남의 생산과 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지만 소비와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동향에 따르면 6월 중 광주의 제조업 생산은 고무·플라스틱(-25.2%), 기타 기계·장비(-8.5%)를 중심으로 감소해 작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전남 역시 기타운송장비(-34.6%), 금속가공(-26.3%)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5.2% 감소했다.

취업자 수도 광주가 5천900명, 전남이

4천300명 줄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제조업(광주 7100명·전남 3700명 감소)과 농림어업(광주 3800명·전남 2300명 감소)에서 고용이 줄어 들었다.

소비·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중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0.7%, 전남은 1.1% 각각 증가했다.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 역시 광주 3천 545대, 전남 7천631대로 각각 5.7% (196대), 29.9%(1757대) 늘었다.

수출은 광주 2.8%·전남 16.5% 증가했으며 수입도 광주 3.5%·전남 36.4% 증가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 광주 북구 일반 수박보다 3배 큰 '무등산 수박' 15일 출하

단맛 좋고 과육 감칠맛 독특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와 무등산수박생산조합(대표 김전중)은 무등산 수박(사진)이 오는 15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무등산 수박 공동직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무등산 기슭에서만 생산되는 무등산 수박은 오래전부터 광주를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올해 생산량은 현재 11농가에서 2,000여통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산 수박은 진초록색 껍질에 줄무늬가 없고 20kg 이상의 대형과로서 일반 수박에 비해 2~3배나 크고 원시적인 단맛과 과육의 감칠맛이 독특하다.

또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B와 C가 풍부하여 신진대사 촉진과 이뇨작용이 잘돼 성인병 예방과 당뇨에 특효가 있고



해독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명품수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무등산 수박 구입은 공동판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주문을 통한 택배도 가능하며, 가격은 8kg짜리 2만원, 16kg짜리 10만원, 20kg짜리 18만원에 판매된다.

특히 고품질의 수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동직판장 선별출하, 품질인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텃밭 익거나 부패된 경우에는 상품 리콜제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무등산 수박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무등산 수박의 성공적인 출하 및 판매를 위해 오는 9월초에 금곡마을 공동직판장에서 재배농가, 주민 및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수박 출하기원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특유의 향과 독특한 맛으로 인정받고 있는 무등산 수박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만 인기 과자 '누가크래커'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누가크래커로 유명한 '몽상82'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누가크래커는 대만이 원조인 과자로 대만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선물 필수템으로 유명하며, 짭짤한 맛의 야채 크래커 사이에 달콤한 누가를 샌드해 '단짠단짠'의 중독성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다. '몽상82'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유명세를 얻은 브랜드로 오리지널, 크랜베리, 커피, 딸기 등 다양한 맛의 누가크래커가 대표적이다. /롯데백화점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한빛원전3호기 재가동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한빛원전 3호기 부실공사·안전성 조사하라"

재가동 계획 중단 촉구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부실공사와 제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한빛 3호기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를 찾아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한빛3·4호기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 분위기 속에 지어진 최초의 핵발전소로 원가절감을 위한 절차 생략 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실험적 성격이 강한 발전소일 수밖에 없다"며 "한빛 3호기에서도 격납탑 배면에 콘크리트 미탈설 부위가 수백에서 수천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가동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들(한수원)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또 ▲1994년 검사지적사항 표가 발행됐음에도 콘크리트 미탈설 부위가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처벌할 것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의 안전성보다 전력수급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밝힐 것 ▲한빛3·4호기 건설 당시 부실공사에 대해 영광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1월 15일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격납탑 내부철판에 대한 점검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콘크리트 미탈설 부위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국 공동행동 대의협력실장은 "1994년 발행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 평화위원회에서 발행한 '위험한 핵발전소'라는 자료집 27쪽 부실시공에서 수의 계약으로 문제가 됐던 현대건설은 무허가 콘크리트공장 운영으로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그동안 소문만 무성할 뿐 외부반출 문제, 1994년부터 콘크리트 공극이 다수 확인됐으면서도 조사는 했는지, 향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 전남 장성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점검 강화

장성군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횡집과 시장을 대상으로 어패류 가검물 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성군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영농교육장과 경로당, 보건지소 등을 순회하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족관물과 어패류의 비브리오패혈증 검사, 어패류용 칼, 도마 등의 구분 사용 및 소독 여부 점검, 어패류 취급업소 대상 예방교육·홍보 등 감시활동을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고위험군인 간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와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 환자 등은 감염시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져 더욱 주의해야 함에 따라 고위험군 120여명에 대해서는 예방수칙을 우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월~10월경에 주로 발생하며, 해·하수 온도 18℃ 이상에서 균활성도가 높아 특히 여름철에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시 주로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하지통증, 발진,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날 것으로 섭취 피하기 ▲피부 상처 시 바닷물 접촉 금지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보관 또는 85℃ 이상 가열처리 ▲날생선 및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광주 동구

## '문화재야행 달빛걸음' 성료

광주 동구가 지난 11일 '2018 하반기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10~11일 이틀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0일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대부분 행사가 취소됐다. 그러나 11일 행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무대가 됐다.

'달빛걸음'은 역사와 문화재를 친근하게 접해보는 야행 프로그램으로, 광주 동구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MASERATI**  
COLLECTIO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휴넷 조영탁 대표

“인재개발이 국가 경쟁력... 사람을 키운다”



“휴넷의 경쟁자는 교육기업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바로 우리의 경쟁자다.”

교육기업 1세대이자 ‘행복전도사’로 잘 알려진 조영탁 휴넷 대표(사진)의 말이다.

휴넷이 교육(Education)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에듀테크(EDUTECH)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당찬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콘텐츠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럴 경우 효과는 극대화되고 대중성도 크게 확대된다. 교육의 경계가 무너져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휴넷이 그 길목에 서 있는 셈이다.

“에듀테크로 교육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휴넷의 꿈이다. 우리가 하버드MBA를 안가고도 그것보다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에듀테크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전도사와 함께 이젠 ‘IT전도사’까지 된 조 대표의 말이다.

휴넷이 202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하고 있는 ‘아바타MBA’가 대표적이다.

“아바타MBA는 콘텐츠를 실시



2020년까지 ‘아바타 MBA’ 개발  
김세종프로젝트 에듀테크 접목도  
업무경험으로 배우는 플랫폼 선배  
글로벌 1위 교육기업이 최종 목표

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인사관리, 재무관리, 전략 등을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먼저 교육한다. ‘챗봇 코칭’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하버드 MBA보다 훨씬 저렴한 몇 십만원이면 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수 많은 사람이 동시에 MBA를 수강할 수도 있다.”

3000여 년간 이어온 인류의 오프라인 교육이 이러닝의 파괴력으로 환경이 급변했다면 에듀테크는 이러닝보다 수십 배, 수백배의 파괴력으로 교육시장을 급변시킬 것으로 조 대표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300명에 가까운 휴넷 임직원 중에서 100명 가량을 IT 전문인력으로 채웠고, 이 비중을 점점 더 올려 2020년이면 목표하는 전체 500명의 직원 중 절반 정도를 IT 전문가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김세종프로젝트’도 에듀테크를 접목한 것이다.

그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면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활용범위는 매우 넓을 것”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비즈니스’도 휴넷이 한참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휴넷은 최근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다시 노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시니어 전문가 매칭 플랫폼 ‘텔런트뱅크’를 새로 선보이기도 했다.

기업에 들어가서 퇴직하기까지 축적한 그들의 지식, 경험, 노하우 등 사회적 자산을 썩히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조 대표는 “게임러닝, 플립러닝, 마이크로러닝 등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가장 교육효과가 큰 것은 교육이 아닌 업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인 만큼, 휴넷이 만드는 다양한 플랫폼이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체 교육담당자, 전문 산업 강사, 오프라인 교육업체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휴넷의 정형·비정형 온라인 과정들을 쓸 수 있도록 열어두고, 이들이 다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토론, 실험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플립러닝’의 핵심이다. 휴넷은 현재 ‘와플’이라는 플립러닝 앱을 선보이고 있다.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도전을 하고 혁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1999년 휴넷을 창업해 내내이면 20주년을 맞는 조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는 신념에서다.

조 대표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것이 휴넷이 추구하는 ‘이타자리(利他自利)’다”고 말했다.

또 주주보다 고객 행복을, 고객보다 가까이 있는 직원의 행복을 우선 챙기겠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초엔 조 대표를 포함한 직원 264명이 모두 중국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벌써 전직원 해외워크숍만 5년째다.

“HRD(인적자원개발)는 말 그대로 기업이 사람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 되고 나아가선 국가경쟁력이 된다. 하지만 우리 무형자산과 지식에 대해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HRD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휴넷의 미션이자 목표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1위 교육기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4개 대학교 어학원 ‘부당위약금’ 적발 귀뚜라미 청도공장에 ‘태양광발전소’ 구축

개강 전 환불 신청땀 전액 환불 조치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가나다순) 등이다.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하여 환불 불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가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시정 사항은 13개 대학에서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능한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정토록 했다.

예컨대 강좌 개시 후 1주일 이내 환불 신청하면 수강료의 7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내 환불 신청하면 수강료의 5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후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개강전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 받고, 월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월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업시간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인 경우에는 절반을 환불 받는다. 수업시간이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환불 사유 조항을 대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내리도록 한 상명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의 약관도 시정 대상이었다.

이들 대학은 환불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만 정했다. 앞으로는 약관 상 환불 사유가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포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구체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연간 998톤 규모 이산화탄소 감축 8만그루 소나무 효과 ‘녹색경영’ 앞장

귀뚜라미가 경북 청도공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며 ‘녹색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귀뚜라미는 청도 보일러 제조공장에서 시간당 1.73MW급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최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청도공장 태양광 발전소는 축구장 약 4배인 2만9000㎡ 규모로 총 5084장의 태양광 모듈을 지붕 곳곳에 설치했다. 하루 3~4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발전량은 2100MW 규모에 달한다. 이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 전력 소비량 200kW 사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75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으로 무공해 전력생산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SQL:RX

홀릭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월 매출액이 지난 7월에 5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네트워크 전문기업의 경우 ‘월 매출 30억원’이 회사의 존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회사 설립 1년여 만에 이를



귀뚜라미 청도공장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서 (왼쪽 다섯 번째부터)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이승울 청도군수, 남정호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연간 998톤 규모의 이산화탄소(CO<sub>2</sub>)를 감축해 약 8만30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공식에는 이승울 청도군수,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남정호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과 함께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은 영남ES 남정호 대표이사과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복지’, ‘청정에너지 및

기기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측은 ▲가스 냉난방기 무상설치 지원 ▲냉난방기·LED 전구 교체 지원 ▲친환경에너지(청정연료, 신재생에너지) 전환시설 지원 ▲도시가스 사회공헌성 투자지역 냉난방기 최적가 공급 ▲가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홀릭 뛰어난 제품력을 기록한 것이다.

홀릭은 최근 미국 RBC Life와의 독점 공급계약 체결을 통한 양질의 건강기능식품 및 산삼배양근 농축액 ‘산신초 캔서제’를 잇달아 출시하고, 주력 상품군인 화장품을 업그레이드한 점 등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뒤엎는 홀릭만의 혁신적인 도전도 이런 성과에 힘을 보탰다.

상장사인 에스디생명공학이 출자한

홀릭은 지난해 4월 출범해 해외 유명 명품클러치백 ‘주디스리버’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코스메틱 브랜드 ‘주디스리버’를 론칭하며 업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주디스리버’ 화장품을 업계 최초로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켰으며 이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식음료, 생활용품 등 자체 개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해 토탈 라이프 케어를 목적으로 생활 제품군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승호 기자



# “폭염에 미리미리”... 추석선물 사전예약 20% ‘쑥’

신선식품 가격 상승세... 미리 대비  
롯데마트, 사상 최대 306품목 준비  
김영란법 개정에 10만원대 이하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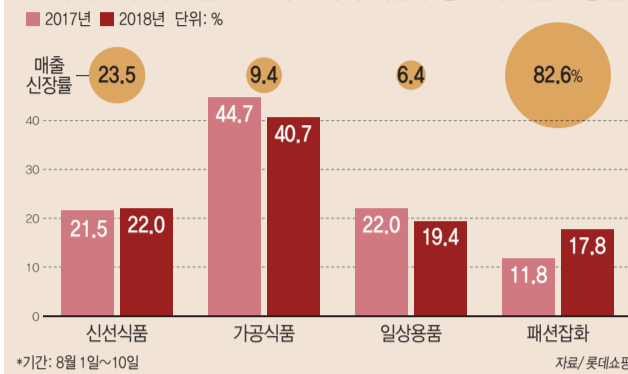
통상 명절을 두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명절 선물 사전예약 판매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명절 선물세트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실적을 살펴봤을 때, 연일 30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동기(2017년 8월 9일부터 18일)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의 사전예약 판매 매출이 전체 선물세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추석 20%에서 지난해 35%로 15%p 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폭염에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다는 전망에 미리부터 준비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마트에서는 올해도 전통적인 추석

롯데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구성비와 매출신장률



선물세트 강자인 한우냉동갈비세트와 3만원 미만 과일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해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전년 대비 23.5%, 가공식품과 일상용품은 각 9.4%, 6.4% 매출이 올랐고, 1만원대 이하 실속형 양말 선물세트의 선전으로 패션잡화 선물세트는 무려 82.6%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증가하고 있는 사전예약 판매 수요를 고려해 올해 신선식품 68종과 가공식품과 일상용품 165종, 패션잡화 선물세트 73종 등 사상 최대 규모인 총 306개 품목을 준비해 오는 9월 12일까지

(8월 1일부터 43일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 비씨 등 10대 카드(롯데/비씨/신한/KB국민/현대/NH농협/하나/우리/광주은행/전북은행)로 결제 시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선물세트를 미리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얼리버드 프로모션'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8월 22일까지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특히 롯데마트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물 함량 50%가 넘는 신선

식품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대 이하 선물세트가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HACCP(위해요소관리우수) 인증을 받은 1등급 한우만을 엄선한 '한우갈비정육세트(2.1kg)'를 9만 9000원에 선보이며,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사전예약 판매 기간에 더 큰 할인 혜택으로 10만원 미만에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대표적으로 '호주산 소 찜갈비세트(냉동/3kg)'와 '호주산 소 혼합갈비세트(냉동/3kg)', '호주산 소 LA식갈비세트(냉동/3kg)'를 L.point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된 각 8만7500원(정상이 각

12만5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과일 선물세트를 고객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년 수준으로 가격을 동결했으며 '햇살에 물든 배란 세트(배 9입)'와 '햇살에 물든 사과란 세트(사과12입)'를 각 2만9000원에, '햇살에 물든 사과와배란 세트(배4입/사과5입)'는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L.point 회원 대상으로 이보다 10% 할인된 2만6100원에 선보인다.

남흥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찍부터 한우 선물세트와 과일 선물세트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1만원 이하 일상용품 선물세트와 패션잡화 선물세트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대 40% 할인과 구매 금액대별 롯데상품권도 주어지는 이번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부담 없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의 배송은 사전예약 판매 종료일인 9월 12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신세계백, 협력사원 피로 풀어주는 '헬스키퍼'

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안마사 채용  
점포별 2명씩 상주... 반응 뜨거워

백화점에서 가장 먼저 고객을 맞이하는 건 협력사원들이다. 협력사원은 '백화점의 얼굴'이지만, 유통채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다 보니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다. 이처럼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신세계백화점이 발벗고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협력사원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 제도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헬스키퍼란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고용한 안마사를 말한다. 이번엔 특히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채용했으며 점포별로 2명씩 상주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새롭게 도입한 헬스키퍼 제도는 본점과 강남점부터 먼저 시범 운영한 뒤 전 점포로 확대해 20여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통업의 특성상 여성 협력사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헬스키퍼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는 협력사원. /신세계백화점

안마사 역시 전부 여성으로 뽑았다.

신세계 측은 협력사원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마사지실 'S 테라피룸'도 새로 만들었다.

1회당 30분씩 하루에 최대 10명씩 이용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0명 정도가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육체적 업무 부담이 많은 판매 사원 위주로 우선 선정하며 족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병이 있는 협력사원 역시 먼저 신청이 가능하다. 벌써 100%의 예약률을 기록할 정도로 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안마 서비스를 시행한 한 달 동안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도 쏟아졌다.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은 직원들은 "무료라는 말에 기대감이 크지 않았는데,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여서 그런지 정말 시원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회사가 케어해주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며 동료들에게도 적극 추천했다.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김정식 부사장은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협력사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원들이 VIP처럼 대우받아야 고객들에게도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이제는 반려식물 시대... 100세 시대 외롭지 않아요"

롯데월드몰이 오는 23일까지 지하1층 도토리숲 매장 앞에서 반려 식물 '마리모'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마리모는 저온수에서 키울 수 있는 초록 공 모양의 애완 식물이다.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없이 2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줘도 100년 넘게 살 수 있어서 식물을 많이 키워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 가라앉아 있는 마리모는 광합성을 하면 떠오르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다. /롯데자산개발

## 롯데백 "캐릭터 만나러 '카페 냥x진' 오세요"

잠실점서 19일까지 한시적 운영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오픈한 인기 캐릭터 팝업스토어 '카페 냥x진'에 고객이 줄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지하1층 월드스트리트 특설매장에 위치한 '카페 냥x진'은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카페 냥x진'은 2004년부터 네이버 웹툰에 일상생활의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그려 큰 인기를 모은 서나래 작가의 '냥이 사는 이야기' 속 주인공 '냥'과, 김진 작가가 2010년 연재한 '나이스진타임'의 주인공 '진'의 캐릭터를 활용한 카페다. 오픈 첫날 약 3500명의 방문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롯데백화점이 캐릭터를 활용한 이색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게 된 것은 최근 SNS 메신저가 발달하면서 이모티콘 등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과 콘텐츠들이 10~20대



'카페 냥x진'을 방문한 고객들. /롯데백화점

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10년간 국내 캐릭터 관련 사업체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캐릭터 사업체의 전체 매출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냥x진'은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식음료 메뉴도 다른 캐릭터 카페와 차별화 했다. '건강한 맛'을 지향해 유기농 밀가루와 비정제 설탕 등 몸에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베이커리와 수제 과일청 등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푸드 올반 냉동볶음밥 3종 출시

신세계푸드가 올반 냉동볶음밥 3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반 냉동볶음밥은 '새우볶음밥', '햄에그볶음밥', '김치볶음밥' 등 3종으로 구성됐으며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3~4분간 팬에서 볶거나 전자레인지에서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볶음밥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신세계백 "드라이어 울볼로 상쾌하게 빨래 건조하세요!" 빨랫감과 함께 통통 튀면서 두들겨 옷의 구김을 펴주는 울볼이 나왔다. 신세계백화점은 폭염에 이어 소나기 등 습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빨래 건조에 도움을 주는 '넬리(Nellie's) 드라이어 울볼'을 선보인다. 드라이어 울볼은 100% 뉴질랜드 양모만 사용해서 만든 공 모양의 제품으로 빨래건조기에 이용 시 빨랫감과 같이 넣기만 하면 된다. /신세계백화점

# CJ제일제당, 美 'KCON LA'서 한식 알렸다

〈한류문화컨벤션〉

## 미국 현지서 '비비고만두' 폭발적 반응

CJ제일제당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스테이플스센터와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류문화컨벤션 'KCON 2018 LA'에서 한식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KCON 2018 LA'에 참가해 'bibigo Tasty Road(비비고 테이스티로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미국 현지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고 만두'는 물론, '비비고' 주요 제품과 소스를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한 한식 메뉴를 준비해 한국 식문화 확산에 집중했다. 다양한 인종과 식문화가 융합된 현지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음식에 한식을 접목한 퓨전 메뉴도 판매했다.

또 한국 음식의 상징인 비빔밥을 콘(Cone)에 담은 이벤트성 한식 메뉴 '비비콘(bibi-cone)'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동·서양의 식문화를 결합한 형태의 차별화된 메뉴로, 햄버거, 샌드위치 등과 같이 간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CJ제일제당 비비고 'KCON 2018 LA' 부스.

/CJ제일제당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밥과 나물, 고기, 잡채, 장류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빔밥 메뉴를 준비해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 이해도가 낮은 관람객들 대상으로는 대표 메뉴인 불고기 비빔밥을 추천했다.

'비비고' 브랜드와 한국 문화, 한식 등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성황리에 마쳤다. 롤렛

게임을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글 캘리그라피로 이름을 새긴 부채, 한글 문장 타투 스티커, 한국 음식 캐릭터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이벤트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함께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크라운해태 임직원 300여명이 '유럽연합 오피셜월드레코드(EU OWR)'의 여름철 단일 장소 최대 눈조각 작품 제작 및 전시 부문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크라운해태

## 크라운해태 무더위 식힌 '한여름밤의 눈조각전'

크라운해태제과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2018 한여름밤의 눈조각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111년만에 가장 뜨거웠던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한 눈조각으로 한방에 날렸다는 평이다.

개막식에서는 지난해 열린 '2017 한여름밤의 눈조각전'이 세계 기록 3대 인증기관인 '유럽연합 오피셜월드레코드(EU OWR)'에서 '여름철 단일 장소 최대 눈조각 작품 제작 및 전시' 부문 세계 최고 기록으로 인정하는 인증서가 전달됐다. 지난해 한국 최고기록 인증에 이어 세계에서 유일한 눈조각 퍼포먼스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크라운해태제과 임직원 300명의 눈블럭 조각은 저녁 6시에 시작했다. 거대한 눈블럭 160개를 동시에 조각하는 장관은 현장을 찾은 2만여 시민들의 눈길을 시원하게 사로잡았다.

연달아 늘어난 눈블럭에서 뿔어져 나온 냉기가 주변보다 5도 이상 온도를 낮췄고, 완성된 조각작품들은 예술성까지 갖춰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힐링을 선사했다. 시민체험용 눈블럭도 별도로 설치돼 시민들도 눈조각 체험에 참여해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도 만들었다.

어두워진 광화문 거리는 8시부터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밝게 빛났다. 완성된 눈조각들이 휘황찬란한 조명을 입고 아름다운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변신했다. 시민들은 임시로 설치한 벤치에 앉아 작품들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여름밤을 만끽했다.

/박인용 기자

## 통합물류협 청년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참가기업을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회째로 9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

엑스에서 열리는 올해 채용박람회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주관으로 열린다. 기업별 면접·채용상담 부스를 제공해 물류분야 취업희망자와 구인기업간 일대일 매칭하고 유망기업 홍보,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열리는 채용박람회는 매년 60여개 이상의 물류·제조·유통 등 기업과 4000명 이상의 구직자들이 참가해 왔다.

올해엔 특히 스마트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채용 성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스마트매칭은 기업이 요구하는 전공, 자격증, 경력 등의 채용기준과 구직자들이 등록한 이력서를 자동으로 매칭해 구직자에게는 합격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참가기업과 구직자에게는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2018년 12월까지 스마트매칭 서비스를 제공, 인재 채용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오늘의 운세 8월 13일 (음 7월 3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이다. 60년생 결과만큼과 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72년생 죽순은 비 온 뒤 잘 자라는 법이니 고난을 참을 것. 84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 말**  54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덜 힘들다는 걸 명심. 66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신중하게 맺는다. 78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 날. 90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으나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 소**  49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친다. 61년생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니 기쁘다. 73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라. 85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주의.
- 양**  55년생 들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67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9년생 머리 아픈 일이 생기지만 오후에 잘 해결. 91년생 지나친 음식은 건강뿐 아니라 친구 사이도 멀어지게 한다.
- 코양자**  5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62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가득 메우듯 기쁨이 넘치는 날. 74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86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모임장소에서 행동을 주의하라.
- 원숭이**  56년생 하나를 투자해도 열 개로 돌아오는 날. 68년생 꾸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8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 마라. 92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기대만큼 성과가 없다.
- 토끼**  51년생 자식 자랑할 일이 많아 즐겁다. 63년생 길 떠나려는 데 천둥이 치니 출발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75년생 지나간 인연이 생각나서 시골포다. 87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 닭**  57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할 탓. 69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성사되니 만남을 중시 여겨라. 81년생 앞서는 것이 타인의 시기를 받을 수 있다. 93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유지가 오늘은 최선.
- 돼지**  52년생 가족이라도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게 좋다. 64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76년생 고지가 코양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88년생 내키지 않은 웃음을 웃어야 하는 쓸쓸한 날.
- 개**  58년생 기회가 주어저도 망설임이 많으니 결단이 필요. 70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마라. 82년생 검은 옷 입을 일이 있겠다. 94년생 시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모든 일에 참여해 보자.
- 뱀**  53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이다. 65년생 검은 구름이 서서히 가시고 밝게 개이니 좋은 날. 77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면 이로운 일이 있다. 89년생 골치 아픈 일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해결.
- 돼지**  59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71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가 잘 성사되겠다. 83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 95년생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먼저 마련하라.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3					
1		3	4		7	9		
	6						4	
	1			4	5		7	
4				8				
	2		6	7	3	4		
	5		2		9		7	1
		1			6	9		
			7		3			5

						4		
						8	4	9
				9	2			1
		4	7		9	2		
	5	3			2			
	1		8	4				7
8			3					2
	6						3	5
		7			5	1	8	

스도쿠 정답								
5	2	8	9	1	4	6	7	3
6	9	5	8	7	2	3	1	4
1	8	6	7	2	9	5	3	1
8	1	7	4	9	5	2	6	3
6	9	2	8	5	1	4	7	3
4	5	7	2	6	8	1	9	3
7	1	4	6	8	2	9	5	3
2	5	6	4	9	7	8	1	3
9	8	1	2	5	7	6	4	3
7	8	1	5	9	2	4	6	3
5	6	8	4	7	2	9	1	3
2	4	9	1	6	5	7	8	3
4	9	5	7	8	6	1	2	3
6	7	8	2	1	9	5	4	3
5	1	2	6	5	4	7	8	9
1	5	8	9	2	6	8	4	7
9	6	4	7	8	5	1	2	3
8	2	4	7	5	1	9	6	3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사십구제의 의미

전에 언급했듯이 파드마 삼바바의 사자의 서(死者의 書)에서 강조하는 것은 망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몹시 두려워 환영이며 환각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살아 있을 때 수행공력이나 선업공덕이 없는 중생의 경우는 물론 악업을 많이 지은 인물일수록 이대망량의 괴로움을 받아 사악처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살았을 때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상태들이 윤회계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려움에 빠진 영가의 의식을 빛으로 인도하여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의 의식들은 실체가 아닌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펼쳐지는 환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죽음 이후 펼쳐지는 모든 영과 의식의 행로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므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비밀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려주려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의 생존 당시 알리는 것은 때가 이르다 생각했지만 시기가 무르익어 펼칠 수 있을 때를 위하여 그는 제자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다시 육체를 갖고 환생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하였다 한다. 몇 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자들은 한 사람씩 세상으로 돌아와 비밀의 책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원래는 약 백 권의 분량이라 하는데 현재까지 모두 65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책 내용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맨 처음 영국의 학자에 의해 사자의 서가 번역되어 출간될 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리학자 칼 융은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고 극찬하며 직접 장문의 해설을 쓴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다. 어이됐거나 이 책 내용 중에 망자의 영가의 해탈을 위해 7일 단위로 계속 의례를 행하면서 사십구일 동안 불교의 경전을 읽어주어 망자의 영혼이 최소한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도록 독려한 내용은 대승불교권의 나라에는 매우 중요한 장례의식으로 자리 잡게 한 모티브가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생과 사를 뛰어넘는 도과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 사십구일 간 인간 영혼이 중음의 상태를 거친다는 파드마 삼바바의 깨달음을 통한 통찰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문화로서 사십구제를 지내는 것도 매우 당연한 의례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는 일 년에 한 번 올리는 기제사도 기피되고 있으니 육도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몹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다.

# 연애인가 국정운영인가



김민 소장  
당당평평

세상만사가 현실을 직시해 이성과 냉철함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반면에 감성과 철학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 인간사의 총체적 집합체인 '정치'야 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단·중·장기적으로 적절히 가시화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지난 정부의 역대급 스캔들로 인해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했다. 대통령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감성이 이성과 현실을 앞서는 국정운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 정권이 왜 그토록 비현실적 국가운영을 하는지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해보자.

첫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는 관세청 수사결과가 발표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 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석철 3만5000t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러시아 소제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로 환적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을 과연 정부가 모르고 있었을까. 몰랐다고 해도 큰 일이고 말면서 묵인했다면 더 큰 일이다. 물론 날이 더워서 관세청이 소실을 쓴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사상 최악의 폭염사태로 학생들

의 방학까지 연장이 되는 마당에 전기료 누진세 문제를 가지고 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대책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름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쪽방촌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서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관계자들은 이더위에 노란 점퍼 차림으로 빈곤층 방문만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쇼맨십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궁금하다. 긴급조치로 일시적으로라도 전기료 누진세를 낮추거나 없애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어야 하는 것인가.

셋째, '드루킹' 스캔들로 특검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은 자신이 먼저 요구했다고 당당하다가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아니라면 우기면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인가. 이미 언론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진실은 김경수 지사와 정부·여당과 국민들의 느낌은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몇 가지 이슈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50%대까지 하락했다. 시도 때도 없이 국민들과 연애하는 듯 한 낮 뜨거운 행보는 즐기차게 잘해 오면서 정작 대통령과 정부로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저임금제 같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정책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지난 6·13지방선거 무렵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

상회담 같은 내용도 결론도 없는 감성놀이나 해대면서 무엇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필자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고 나라를 나라답게'란 말인가.

오랜 세월 기득권에 속했던 정부의 집권은 지난 정권처럼 부패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집권을 해본 적도 없고 기득권에 대해 국민만 선동한 진보정권이 집권을 하면 국가자체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식이 없고 비현실적 의욕만 앞서 집권 내내 허니문기간만 보내다 마치니 무엇이 제대로 되겠나.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삶은 또 얼마나 황폐해질 것이며, 마치 대통령과 연애감정으로 시작했던 그 기대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뀔 것이다. 연애와 비슷하지 않다. 처음에는 상대를 향해 죽고 못 사는 감정에 빠져 이성을 상실했다가 시간이 지나 정신이 돌아오고 헤어질 때가 되면 상대만 아니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그럴싸하게 포장된 밀바다 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무책임하게 아무말대잔치로 내뱉는 연애 관계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연애는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그렇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래 백번을 양보해 지금까지는 위망입이었다고 이해하자. 그럼 지금부터는 감성놀이 그만하고 진짜 정치 즉 국민이 납득할만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데일리포터 정치연구소장



**KDB나눔재단, 사회적기업 10곳에 지원금 전달**  
KDB나눔재단은 지난 10일 한국YMCA연합회에서 'KDB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사회적기업 10곳에 총 2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해 시설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경제활성화지원센터 김완배 이사장(뒷줄 왼쪽 세번째부터)과 KDB나눔재단 강창호 사무국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송남철 본부장이 지난 10일 한국 YMCA연합회에서 'KDB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B나눔재단



**NH농협은행, 폭염기간 말벗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 주재승 부행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부서 직원과 말벗서비스 상담사들은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부천시독거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어르신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상담사들이 말벗서비스 대상 어르신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전화상으로 다하지 못한 안부를 나누고 동시에 살인적인 폭염에 필요한 휴대용 선풍기와 사은품 등을 지원하고, 삼계탕을 점심식사로 대접했다. /NH농협은행



**쉐보레, 고객가족과 '스타나이트데이' 개최**  
쉐보레가 지난 11일 경기도 양평군 중미산에서 홍보대사 활동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나이트데이(Star Night Day)' 행사를 개최하고 중미산 일대에서 제품 시승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선발된 200명의 쉐보레 앰버서더는 7월부터 두 달간 리눅스와 볼트EV, 카마로, 스파크, 말리부, 트렉스 등 쉐보레 대표 제품 시승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고객 홍보 대사로 활동 중이다. /쉐보레



**삼표그룹, 보령시에 10년째 '우수인재 장학금'**  
삼표그룹은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재단인 '정인욱 학술장학재단'을 통해 충남 보령지역의 장학생 10여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삼표가 보령지역에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삼표는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우수 중·고·대학생을 선발,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표그룹 및 보령시 관계자들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 부동산 '파리대책'?



기지수첩  
채신화 (부동산부)

'~했다더라', '흔히카더라'통신(소문)으로 전해져 진위 파악이 어려운 사실은 부동산에서 활발하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프리미엄이 붙어서 1억원 주고 팔았다더라', '다운 계약서 작성하고 세금을 반이나 덜 냈다더라' 등. 한국에서 부동산 만큼 돈 벌기 쉬운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8·2대책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역대 최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조항이지만 시장에선 먹히지 않았다.

8·2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투기 세력을 겨냥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물건을 회수하며 서울에선 매물 폭귀 현상이

나타났고, 지방에선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8·2 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높다. 한국감정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8282만원에서 올해 7월 6억9593만원으로 19.4% (1억1311만원)나 뛰었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7억원은 있어야 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의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등을 이유로 빚을 떠안고 출발한 경력 3년 이하 사회 초년생의 47%가 평균 2959만원 상당의 대출을 갖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평(3.3㎡)당 아파트 매매가는 2783만 2200원. 빚을 떠안고 출발하는 이들은 남들보다 한 평 더 작은 곳에서, 더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선 하루에도 수 천만원씩 호가가 된다. 그동안 취재했던 마포, 용산, 여의도, 옥수 등이 그랬다. 중개업자들은 '다운 계약서'를 권유하며 불법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다. 주위에서 부동산으로 돈깨나 벌었다는 사람들은 '불법 전대'를 일삼았다.

결국 카더라 통신에 등장하지 않는 이들은 언제나 서민, 실수요자다. 이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방을 뺐다. 이에 정부는 또다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노무현 정권을 보면 초창기에 집값이 뛰었다가 대책의 강도를 높이자 부동산 과열이 가라앉기도 했다. '8·2 대책으로 파리(실수요자·서민) 목숨만 위태로워졌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사라질 만한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해 본다.

/csh9101@metroseoul.co.kr

## 인사

- ◆행정안전부 ◇ 실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박재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현민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길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창성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김승수 ◇ 국장급 전보 △대변인 변성완 △인사기획관 장수완 △조직정책관 최용범 △공공서비스정책관 조소연 △지방행정정책관 최훈 △지방재정정책관 강성조 △지방세정책관 이용철 △지역경제지원관 최병만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김광용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임상규 ◇ 과장급 전보 △지방세입정보과장 황순조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장급 전보 △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과장 이동훈 △사회

복지정책관실 보건정책과장 서영석

## 부음

- ▲ 조병학씨 별세, 조성희·성현·유현(충북도청·경희(서울 성수교 교사)씨 부친상, 민혜정(호암방재 대표)씨 시부상, 김주학(새생명전원교회 목사)·김창영(한국안전인증 이사장·세이프타임즈 발행인)·연민식(서문재과)씨 장인상 = 12일 오전 11시 47분, 충북 청주의료원 1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 043-279-0144
- ▲ 현은숙씨 별세, 박상돈(중부일보 파주담당 부장)씨 모친상 = 12일 오전 0시 20분,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 ☎ 031-940-9177
- ▲ 김갑득씨 별세, 김종열(전 관세청 차장·한국세

무사회 상임고문)씨 모친상 = 11일, 경남 창원시 삼성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4일 ☎ 055-233-5131

<b>metro 메트로미디어</b>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준호
인쇄인	중앙일보(주)김준호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7)0206 2002년5월28일 제4018호 서울 7)50111
일간메트로경제	2017년3월09일 제00112호



**아디다스, 'MMCA 무브 X 아디다스' 성료**  
아디다스와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한 관객참여형 이벤트 'MMCA 무브 X 아디다스'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12일 아디다스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서울 중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MMCA 무브 X 아디다스'에는 관객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아디다스 MMCA MOVE 발레 동작을 배우고 있는 모습.. /아디다스

# 現 중3 대입, 수학 기하·과학 II 존폐 놓고 논란 “기초학력 떨어진다” vs “학계 이기주의”

교육부 이달 중 포함여부 발표  
시민단체 “이공계 대학서도  
기하 필수 아닌 곳 절반” 반박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101일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대입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과 과학 일부 과목의 수능 포함 여부가 논란이다. 교육부는 당초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학 기하와 과학 II (물리 II·화학 II·생물 II·지구과학 II) 과목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학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학계와 교육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수능 수학과 과학 II 과목의 수능 적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는 선발방식과 선발비용,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현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문·이과 통합형 교육을 받게 된다.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현재 주로 이과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기형과 문과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과형을 계열 구분 없이 '통합형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등 2개 과목으로 분리해 치르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2020학년도까지 수학 가형에 포함되는 기하는 필수선택과목에서 빠지고, 기존 8과목이던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중에서도 과학 II (물리 II·화학 II·생물 II·지구과학 II) 4과목이 제외된다. 새 교육과정에서 기하와 과학 II는 주로 고교 3학년 때 배우는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으로 수능 수학 통합형 공통과목은 고교 2학년 수준의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교육부는 진로 탐색을 위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수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하와 과학 II를 수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수학 능력에 차이가 커 출제범위를 줄이는 것은 대학 이공계의 수학 수월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경쟁력 저하도 우려하고 있다.

대한수학회 등 11개 수학 관련 학회로 구성된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022학년도 수능을 현재처럼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해야 하고, 이공계 열 학생이 치르는 시험 영역에 ‘기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과학기술계 단체 13곳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과 과학 교육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하와 과학 II를 수능 과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학계가 본인들의 밥그릇을 위해 이기적

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기하와 과학 II 과목을 수능에서 제외하는 교육부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미국 고등학생의 AP 미적분 이수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대학 이공계에서조차도 기하가 포함된 미적분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가 44%인 절반에 가깝다”며 “수학과 과학기술계가 기하를 수능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학·과학계가 최근 정부가 2022 수능 개편안에서 기하와 과학 II를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수능에서 기하와 과학 II가 빠지면 고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을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고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며 “대학에서 기하와 과학 II를 중시한다면 고교에서 결코 기하와 과학 II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학생들도 기하나 과학 II가 중요하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승덕고 진로진학 지도를 맡고 있는 장광재 교사는 “수능에서 물리 I, 물리 II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몇 없지만, 내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물리 II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면서 “수시모집 등에서 학생 본인의 자발적인 학습 의지와 노력을 충분히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우정바이오가 지난 9일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희대학교

## 경희대 산학협력단, (주)우정바이오와 MOU

공동연구·인재양성 프로그램개발 등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홍충선)은 지난 9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우정바이오(대표이사 천병년)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정바이오는 생명과학 연구와 신약물

질 개발, 멸균장비 제조와 판매 등 국내 정밀의학 및 감염관리 분야 선도 기업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력 공동·위탁 연구 참여 ▲산학협력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신 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시험 분석 및 연구용 고가 장비·시설 공동 활용 등을 약속했다. /한용수 기자

## 성신여대 윤용남 교수 ‘性理大全’ 최초 완역

(성리대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사업단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윤리교육과 윤용남 교수(사진)가 이끄는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사업단이 중국 송나라 성리학설을 집대성한 ‘성리대전(性理大全)’ 완역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리대전 일부가 번역된 적은 있으나 완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리대전은 중국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永樂帝) 때인 1415년에 편찬됐고, 4년 후인 1419년(세종 1년)에 우리나라에 전래됐다. 이 책을 본 세종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책의 보급과 공부에 힘을 쏟았



으며 세종대의 찬란한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성리대전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그동안 이

책에 대한 번역 요구가 많았지만, 워낙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문학, 과학, 음악, 어학, 정치 등 여러 학문분야가 망라된 책이어서 진행에 번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20여명의 연구진이 5년간의 연구 번역 작업과 3년간의 교정편집 작업을 통해 완역본을 완성하게 됐다. 이 책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아직 번역을 완성하지 못했다.  
윤용남 교수는 “번역하는데 있어서 내용 전달에 왜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원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주석과 설명을 붙였다”며 “성리대전에는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에 관한 내용까지 두루 담겼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회적 갈등 이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성리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한농대 농수산업 경영비법 갖춘 현장실습 담당교수 모집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을 책임질 현장교수와 실습장을 연중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기현장실습은 8개월간 한농대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국내·외 우수 농장과 어장의 경영, 생산기법을 현장교수로부터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모집 대상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모집분야는 한농대 18개 학과의 전공과 관련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장과 현장교수다.

우선 현장교수는 ▲교육자적 소양과 덕망 ▲5년 이상(한농대 졸업생은 3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를 갖춘 농어업인 및 연구자가 요건이다.

신청서 접수는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된다.

/이범종 기자 joker@



상명대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로봇동아리 ‘휴머노이드 로봇클럽’ 소속 학생들이 지난 6일~12일까지 7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8 FIRA RoboWorld Cup & Cogress’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 상명대 휴먼지능로봇공학과 국제 로봇대회서 종합우승

‘FIRA RoboWorld Cup & Cogress’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로봇동아리 ‘휴머노이드 로봇클럽’이 ‘2018 FIRA RoboWorld Cup & Cogress(이하 FIRA2018)’ 대회에 참가해 금3, 은3, 동3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명대 휴먼지능로봇공학과 2학년생 12명으로 구성된 휴머노이드 로봇클럽 팀은 지난 6일~12일까지 7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FIRA2018 ‘휴머

노이드형 로봇축구(Androsot) 부문에 참가해 챌린지1 종목에서 2위와 3위를, 챌린지2 종목에서 1위, 2위, 3위를 석권했다. ‘로봇 축구(Robot Soccer)’ 부문에서도 1위와 3위를 수상해 종합 합계에서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올해 23회를 맞은 FIRA 2018은 지역별 예선을 거친 20여개국 1200여명이 참가해 15개 부문에서 세계 각국의 분야별 로봇 기술을 겨루는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서울여대 초등학생·학부모 대상 ‘소프트웨어 캠프’ 개최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지난 9일~10일까지 서울 노원구 교내 인문사회관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캠프’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여학생과 어머니 9개 팀 총 18명이 참가해, 보드게임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본원리를 습득하는 ‘소프트웨어와 만나기’, 로봇 청소기 만들기를 통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소프트웨어와 친해지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9일~10일까지 서울 노원구 교내 인문사회관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캠프’를 개최했다. /서울여자대학교

### 동국대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참가팀 모집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2018년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Social Venture Accelerating program)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팅은 창업교육,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초기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된 소셜 임팩트 미니 해커톤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달 31일부터 1개월 간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 론칭을 위한 실천형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 제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metro 경제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 [축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 [기조강연]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새로운 지정학: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  
 원동욱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강연]

<TCR/TSR을 활용한 Intermodal 서비스>

안재호 CJ대한통운 상무

<한반도 철도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제>

윤희로 사단법인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

<TBA>

(국가 물류정책 등)

## 행사개요 및 문의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 - 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주 최 : 메트로경제

후 원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김영진,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새로 나온 책

# 늪고 병드는 것, 불행하지만은 않은 곳

최근 KBS 방송 스페셜을 통해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란 코너가 방영됐다.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서빙을 보는 식당이다. 햄버거를 시키면 만두가 나오고, 김치찌개를 시키면 된장찌개가 나오는 식당. 그러나 손님들도 이곳에선 좀더 느긋해진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집

오구니 시로 지음/김윤희 옮김/웅진 지식하우스

일, 요리점을 꾸러 나간 과정들이 쓰여졌다. "역할을 가진다는 것이 사람을 이토록 빛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눈 앞에서 한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을 보며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틀릴지도 모르지만 부디 이해해 주세요, 이런 콘셉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아내에게 있어서 틀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겠지요" '실수는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실수를 가볍게 수용하고 즐기는 요리점은 늪고 병드는 것이 더 이상 불행하거나 외롭지만은 않은 곳으로 만들었다.

232쪽, 1만4000원 /오진희 기자 valere@

우리 부모가, 나중에 내가, 누구라도 나 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점, 치매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사는 세상을 훨씬 더 잘 작동하게 한다는 점을 따뜻하고 감동어린 에피소드들로 비추고 있다.

사실, 이 코너의 원작은 일본 NHK방송의 '주문을 틀리는 요리집'이다. 이 방송국 피디(PD) 오구니 시로는 어쩌다 취재를 가게 된 간병시설에서 예정된 메뉴가 아닌 엉뚱한 음식을 받아보는 경험을 한 후, 치매 어르신들을 직원으로 꾸러 식당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전 세계 150여 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참여와 기부 문의가 쏟아졌다.

오구니 피디가 이 특별한 프로젝트의 여정을 담은 책이 한글로 번역돼 최근 출간됐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집'에서 생긴

더 걸 비포

JP 델레이니 지음/이경아 옮김/문학동네



더 걸 비포(전에 살던 여자)'는 완벽하지만 많은 것을 감수해야만 살수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심리스릴러다. "사람들은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달성하는 걸 도와줄 어떤 방식, 장소, 혹은 식습관이 존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나치게 따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책을 소개한 바 있다. 508쪽, 1만5000원 /오진희 기자

서른, 결혼 대신 야반도주

김맛자, 위선임 지음/위즈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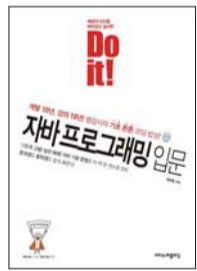


나이 서른, 10년 지기 두 여성이 24개국 97개 도시를 718일간 여행하며 세상과 부딪친 유쾌하고 눈물나게 치열한 분투기다. 사회생활 5년차, 대책없이 떠난 여행길에서 만난 행복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그려져 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느라 정작 살피지 못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행하고 돌아와 현재를 즐기고 있는 두 사람.

444쪽, 1만4800원 /오진희 기자

자바 프로그래밍 입문

박은종 지음/이지스퍼블리싱



비전공자, 문과생에게도 공부할 맛을 내게 하는 프로그래밍 공부 입문서다. 초보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을 135개 그림으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 자바가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실전형 240개 예제도 담았다. 특히 머리 뿐 아니라 손이 자바 문법을 기억하게 할 만큼 체계적인 복습도 설계돼 있다. 자바학습 노하우를 담은 무료 동영상 강의도 제공한다. 596쪽, 2만5000원 /오진희 기자

# “모바일로 ‘아시안게임’ 관람해요”

- SK브로드밴드 '옥수수' HD 중계·클립 서비스 등 제공
- KT '올레 tv·올레 tv 모바일' 다시보기 무료제공·특집관 운영
- LG유플러스 'U+비디오포털' 실시간·하이라이트 등 자유시청



KT 홍보모델이 아시안게임 경기 중계를 홍보하고 있다. /KT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생중계를 지상파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 3사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기 생중계를 제공한다. 타사 고객들도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의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은 45개국 회원국에서 1만1300여명 선수가 참여해 40개 종목에 걸쳐 465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아시아 최대 축제다.

12일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를 통해 오는 15일 대한민국 축구 경기(바레인전)부터 내달 2일 폐막식까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생중계 및 클립 서비스를 통신사 상관 없이 누구나에게 무료 제공한다.

옥수수는 지상파 방송사와 아시안게임 중계권 계약을 맺고 아시안게임 경기를 풀 고화질(HD)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실시간 방송이 끝난 뒤에는 하이라이트와 명장면 클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포털 네이트와도 손잡고 아시안 게임 전용관을 구성해 대회 일정과 함께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와 순위 등 대회 상세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KT도 지상파와 중계권 계약을 맺고 올레 tv와 올레 tv 모바일을 통해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경기를 실시간 중계 및 다시보기(VOD) 서비스로 무료 제공한다. 특히 올레 tv 모바일은 고화질 생중계를 비롯해 경기 하이라이트와 아시안게임 뉴스 등을 한데 모은 '아시안게임 특집관'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모바일TV 서비스 'U+비디오포털'에서 아시안게임 실시간 경기, 하이라이트 등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모바일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이동통신3사 모두 아시안게임 시청자를 잡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도 시행한다. SK브로드밴드는 아시안게임 개막 이

전에 대한민국 응원 댓글 이벤트를 시작으로, 개막 이후 대한민국 주요 경기를 선정하여 해당 경기와 관련된 퀴즈를 출제하고 답변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하이라이트 및 명장면 등 클립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시청시간 기준) 고객 1등~200등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KT 또한 내달 2일까지 올레 tv 모바일에서 이벤트 응모 후, '2018 아시안게임' 생중계와 다시보기 VOD를 1회 이상 시청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18명에게 BHC 치킨세트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V포인트를 증정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벤트 메뉴에서 아시안게임 경기 실시간 중계와 경기 하이라이트를 시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러리스 카메라, 스포츠 의류, 외식상품권을 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cu.co.kr

# 휴가지 맛집 관광객들만 '복적'

SK텔레콤 'T맵' 데이터 15억건 분석  
여수·강릉 맛집 현지인 3~7% 불과

휴가지의 유명 맛집은 관광객들만 복적일 뿐, 현지인들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을 피해 '현지인 맛집'을 찾아간다는 속설이 확인됐다.

SK텔레콤은 'T맵'의 총 15억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산과 여수·제주·전주·강릉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음식점 월방문자를 분석해본 결과, 관광객 점유 비율이 최대 97%(현지인 비율 3%)에 달하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많이 알려진 유명 음식점을 중심으로 관광객 몰림 현상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관광객이 몰리는 식당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은 다르다는 속설이 'T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SK텔레콤은 기업 블로그인 SKT인사이드에 조사자료 중 '지역별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을 공개했다. 향후 이를 확대해 '맛집'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음식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관광객들이 찾는 식당과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식당이 따로 있다는 점이 'T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T맵'으로 길안내를 요청해서 끝까지 주행해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만 방문으로 인정했다.

지역별로 볼 때 여수와 강릉의 경우 'T맵'을 이용해 찾은 인기 음식점 상위 1~10위에서 현지인 점유율이 3~7%에 불과했다. 즉 음식점을 찾은 차량단위 방문객

100명 중 현지인은 3~7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제주와 전주의 경우에도 일부 유명 음식점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은 마찬가지로 관찰됐다.

SK텔레콤은 이번 분석에서 'T맵'내에 주 활동지역을 산출하는 로직을 이용해 주 활동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 음식점을 찾아가는 경우는 '관광객', 주 활동지역내에서 음식점을 찾으면 '현지인'으로 분류했다. 이후 총 15억건의 'T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음식점을 찾고 직접 방문한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광객·현지인 여부를 구분했다.

/김나인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13일

음력: 7월 3일

수도권 날씨

36~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46 | 해질 / 19: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앵초

비바람 땀벌에도 삶의 꽃대를 끈게 세웠나니  
척박하다 닳하지 말자

/고흥근 작

# 내달 8일부터 '가가례'展

전통·현대 제사상 등 전시

종가에서 아파트까지, 집집마다 다른 제사문화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는 9월 8일부터 열린다.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기획한 '가가례(家禮): 집집마다 다른 제례의 풍경'展(展)이다.

전통적 생활방식과 관념이 달라짐에 따라 제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제사 시간의 변화나 제사를 지내는 횟수, 그리고 소가족화나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제사 음식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에서 열린다. 오픈닝 행사는 9월 7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산업]**  
삼성 '갤럭시노트9'  
침체된 번호이동 시장  
구원투수 될까  
04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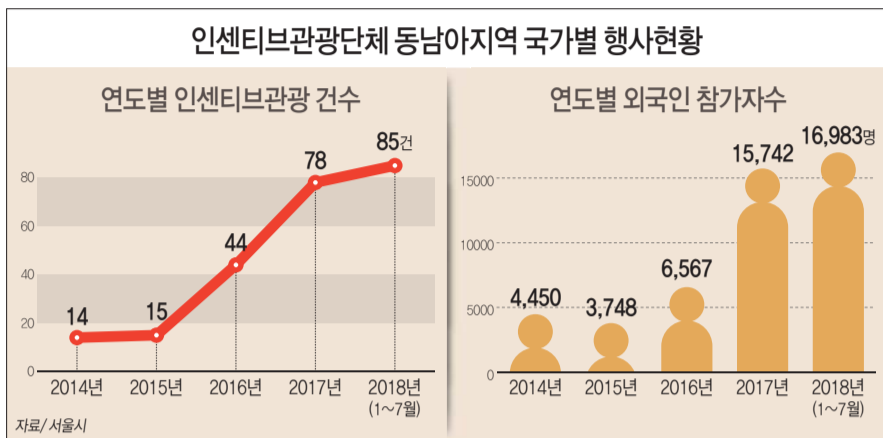
**[부동산]**  
재개발 속도내는  
노량진뉴타운  
'동작구의 심장' 부상  
08



# “서울이 좋아서 또 왔어요” 印尼기업 최대규모 재방문

## 작년 포상휴가로 서울 찾은 'MCI' 약 두배 규모인 2000여명 방한 동남아 인센티브관광 최대 규모

서울에 단체포상휴가를 즐겼던 인도네시아 기업 'MCI(Millionaire Club Indonesia) 그룹'이 오는 다시 서울을 찾는다. 지난해 1100명의 약 두 배 규모인 2000여 명이 방문한다. 동남아 단일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인센티브관광단체 중 첫 재방문 기업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인니 기업 MCI가 오는 9월 서울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MCI그룹은 인도네시아 지역 화장품 제조·유통 및 금융상품 판매 기업이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본사를 비롯해 자카르타 사무소, 대만 타이베이에 지사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여행이 만족스러웠다는 MCI그룹 임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기업이 올해도 서울로 다시 포상관광을 오게 됐다”고 재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올 상반기 서울을 방문한 동남아 지역 인센티브(기업관광) 관광객 수는 1만 7000명(지난해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적(1만5742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 2014년 14건 4450명에 불과했던 동남

아 인센티브 관광객이 작년 78건 1만574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월엔 말레이시아 사하지다 하이오그룹 1200명, 인도네시아 터퍼웨이 그룹 1500명이 방문하는 등 동남아 지역 대규모 단체관광객의 서울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국 금한령 이후 침체됐던 인센티브관광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서울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격적인 공동 마케팅을 펼친 결과”라며 “동남아 현지 관광설명회, 방송광고 등 관광객 방문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기업 임직원들은 9월 10일부터 10월3일까지 약 한달 동안 2000여 명이 10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서울을 방문한다. 임직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에 관심이 높은 만큼 'K-Style Hub'를 방문, 한식문화 및 공예체험 등을 할 계획이다.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로7017, 명동 등 서울관광명소도 방문한다. 시는 해외 인센티브관광단체의 서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방문 시 인천공항 환영메시지, 특화관광 지원 등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환대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이번 인니그룹 재방문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또 다른 재방문 사례들이

어갈 수 있도록 한복체험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인니그룹이 방문하는 여행지에 한복체험 부스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한복을 직접 입고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해외 인센티브관광단체의 서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방문 시 인천공항 환영메시지, 특화관광 지원 등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환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기업 단체 관광객의 서울 방문은 작년에 이어 재방문하는 단체이자 그 규모가 작년의 2배에 달하는 만큼 최적의 MICE 개최지를 표방하는 서울시에게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향후 서울시가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재방문율이 높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MICE 개최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 광복절 태극기 달고 '한강 자전거 한바퀴 축제'

## 서울시, 평화 기원 축제 개최

오는 15일인 광복절에 한강에서 자전거 한바퀴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평화를 기원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나누고, 자전거 안전에 대해 소통하는 축제로 '2018 한강 자전거 한바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 한바퀴 운영 코스는 ▲몽팡코스(왕복 40km, 약 4시간 소요, 여의도 → 반포(잠수교) → 이촌 → 난지(반환점) → 이촌 → 여의도) ▲가죽코스(왕복 15km, 약 2시간 소요, 여의도 → 반포 달빛광장(반환점) → 여의도)로 개인의 운동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라이딩 방식은 참가자 100명씩 20개의 조를 이루고, 조별로 배정된 자전거 전문 리더가 동선을 안내하며 함께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더의 안내에 따라 자전거도로 권장속도 20km/h로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며 안전주행하면 된다.



이 행사는 한강몽팡 여름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하며, 한강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비경쟁 자전거 대회다. 시는 “행사참가자들이 자전거 내비게이션(모바일앱)을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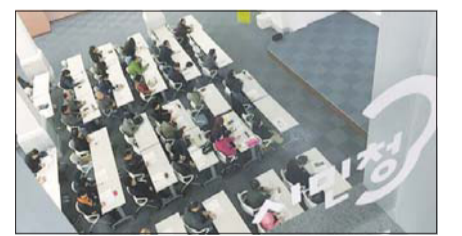
여 안전속도 및 자전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속도·기록경쟁을 하는 고속주행이 아닌 제한속도(20km/h)를 지키며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아닌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전속도를 잘 지킨’ 참가자에게 시상한다. ‘에너지 챔피언’은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참가 신청일로부터 행사 당일까지 통근시간대 자전거 이용 총 이동거리(탄소절감량)로 순위를 매긴다. ‘안전 챔피언’은 행사 당일 ‘모바일 앱’을 통해 자전거 도로 주행 및 20km 규정 속도를 준수해 완주한 참가자들 중 점수가 높은 순위로 시상이 진행된다. 현장접수는 행사 당일 오전 9시까지 접수처(여의도 멀티플라자 옆)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티셔츠·태극기·완주증·에너지젤 등 기념품이 포함돼 있다. /오진희 기자



서울의 폭염은 아직도 매섭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뜨거운 하늘 아래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일뉴스

# '통일 두려워 말자' 주제로 무료 특강

서울시는 오는 9월 5일 오후 4시 서울 시민청 태평홀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강 주제는 ‘분단 73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자’이다. 강연자로는 통일문제 전문가인 최대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 원장이 나선다. 이번 특강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통일인식 함양과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 희망자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청 전경. /서울시

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민과 '50+커뮤니티' 원탁토론회

## 50+커뮤니티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서울시는 오는 29일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50+커뮤니티 원탁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50+커뮤니티의 다양한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겪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50+커뮤니티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방향성, 운영 등 공통된 문제의식과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50+세대를 포함해 시민 100명이 참석한다. 원탁토론회 참가 희망자는 28일까지 서울시50+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론 주제별로 1인당 2개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0+커뮤니티의 자립과 성장,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ki1@



시민 참여 토론회 모습. /서울시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50+커뮤니티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ki1@

# 중구, 민간 어린이집 7~8월 냉방비 전액 지원

서울 중구는 관내 민간어린이집 23곳의 7~8월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여름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시간이 늘어난 어린이집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구는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최고 26만원의 냉방비를 보조해왔다. 올해

에는 어린이집별로 최종 고지된 전기요금과 기존 지원액 간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 고지서에 맞게 전기요금을 먼저 납부하면 구에서 확인해 사후 보전해준다. 구는 가용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냉방비 지원액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More than Chemistry

# 롯데케미칼은 지금, 아시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세계 화학이 주목하는 치열한 시장, 동남아시아  
8년 전부터 미래를 보고 이곳에 온 우리는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기업을 세우는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롯데케미칼 타이탄, 약 4조원 규모 상장]

## 화학이 있는 곳을 넘어 화학이 가야 할 곳으로

롯데케미칼이 만드는  
GLOBAL CHEMISTRY는 계속됩니다



# LOTTE CHEMICAL

The Global Player

